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inter-korea broadcast exchanges

-Focusing on co-production-

이 경 빈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년 6월 일

석사학위논문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inter-korea broadcast exchanges

-Focusing on co-production-

지도교수 이 우 영

이 논문을 북한학 석사학위(사회문화언론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사 회 문 화 언 론 전 공
이 경 빈

이경빈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동 엽 (인)

심 사 위 원 김 성 경 (인)

심 사 위 원 이 우 영 (인)

2024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 vi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 방법과 구성 ····· 7
1. 연구 범위와 대상 ····· 7
가. 방송교류의 정의와 분류 ····· 8
나. 공동제작의 정의와 범위 ····· 9
2. 연구 방법 ····· 11
가.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 개발 ····· 11
나. 세부 항목 및 배점 ····· 15
3. 논문의 구성 ····· 18
제2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역할과 전개 과정 ····· 19
제1절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의 방송의 역할 ····· 19
제2절 남북한 방송교류의 전개 과정 ····· 21
1. 방송교류의 모색기: 1998년 이전 ····· 21
2. 방송교류의 활성화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 24
3. 방송교류의 조정기: 2008년 이후 ····· 29
제3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유형 연구 ····· 31

제1절 간접적 교류 유형 ····· 31
1. 방송영상물 교류 ····· 31
2.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 36
제2절 직접적 교류 유형 ····· 39
1. 주요 행사 중계 ····· 39
2. 취재·제작 지원 ····· 41
3. 공동제작 ····· 45
가. 생방송 뉴스 ····· 48
나. 음악쇼 ····· 48
다. 다큐멘터리 ····· 51
라. 애니메이션 ····· 52
마. 드라마 ····· 53
제4장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 분석 ····· 55
제1절 공동제작 사례 평가 ····· 55
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 55
2. 드라마 '사육신' ····· 59
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 62
제2절 공동제작 사례 분석 ····· 65
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 67
2. 드라마 '사육신' ····· 71
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 76
제5장 결론 ····· 80

참고문헌 ····· 83

ABSTRACT ····· 86

표 목 차

【표 1-1】 남북한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 ····· 15
【표 3-1】 남한에서 방영된 북한 영상물 ····· 35
【표 3-2】 북한에서 방영된 남한 영상물 ····· 36
【표 3-3】 남북한의 주요 행사 중계 사례 ····· 41
【표 3-4】 남북한의 취재·제작 지원 사례 ····· 44
【표 3-5】 남북한의 공동제작 사례 ····· 46
【표 3-6】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 프로그램 텔럽의 북한측 참여자 ····· 52
【표 4-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사례 평가 ····· 57
【표 4-2】 드라마 '사육신' 사례 평가 ····· 61
【표 4-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사례 평가 ····· 64

그 림 목 차

【그림 1-1】 남북한 공동제작의 평가지표 ····· 13
【그림 2-1】 연도별 남북한의 방송교류 횟수 ····· 24
【그림 3-1】 연도별 남북한의 방송영상물 교류 횟수 ····· 35
【그림 3-2】 연도별 남북한의 주요 행사 중계 횟수 ····· 40
【그림 3-3】 연도별 남북한의 취재·제작 지원 횟수 ····· 43

【그림 3-4】 연도별 남북한의 공동제작 횟수 ····· 46
【그림 3-5】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 프로그램 텔럽 캡처 화면 ····· 51
【그림 4-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의 사례 평가 레이더 차트 ····· 58
【그림 4-2】 드라마 ‘사육신’의 사례 평가 레이더 차트 ····· 62
【그림 4-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사례 평가 레이더 차트 ····· 65
【그림 4-4】 남북한 방송교류의 사례 비교 레이더 차트 ····· 66
【그림 4-5】 남북한 방송교류의 방송(송출) 지역 ····· 67

국문요약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언론전공 이 경 빈
지도교수 이 우 영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된 남북한 방송교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특성과 성과를 살펴보고, 방송교류의 유형 중 공동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방송교류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남북한 방송교류의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에 집중하였다.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평가하기 위해 도출한 평가 지표는 ‘교류의 형태’, ‘방송(송출) 지역’, ‘소재의 다양성’,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총 다섯 가지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평가 지표에 따라 남북한 공동제작의 대표 사례인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와 드라마 ‘사육신’,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평가하였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는 ‘방송(송출)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지역에서 송출된 최초의 남한 대중음악쇼로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드라마 ‘사육신’은 ‘교류의 형태’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드라마 ‘사육신’ 공동제작을 통해 남북한 방송기술의 격차를 좁히고 방송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북한 방송교류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산업적 성과’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교류 초기부터 산업적 접근이 가능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남북한 방송교류가 재개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가 남북한 방송교류의 지향점을 설정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남북한 방송교류, 남북한 공동제작, 유형 연구, 평가 지표 개발, 개별 사례 평가, 개별 사례 분석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남북한 방송교류는 정치, 경제, 문화에서 남북이 가진 차이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하여, 분단 이후 교류가 단절된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 사례에서 북한이 얻은 방송의 역할에 대한 교훈은 남한과의 방송교류를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이 남북한 방송교류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남북한 방송교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한 방송교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다가, 2008년 남한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고, 북핵 문제와 남북, 북미 간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다시 중단되었다.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남북의 사회문화교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문화교류가 재개되면서 방송교류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방송교류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시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와 방송교류는 단절된 상태이다. 남북한 방송교류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한 방송교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매체 시대에도 방송은 여전히 대중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을 통해 남북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방송교류는 체육, 문화·예술, 학술·교육, 방송 기술 및 통신 등의 장르와 결합하여 사회문화교류의 촉매제가

되어 왔으며, 철저하게 차단된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남한 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남북한의 방송교류는 긴 분단의 시간을 넘어 남북한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문화교류의 한 분야이다.

2024년에서 바라보는 남북한 방송교류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적기라고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이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 것처럼 남북한 방송교류도 새롭게 맞이할 변화를 준비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된 남북한 방송교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과 성과를 살펴보고, 방송교류의 유형 중 공동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방송교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남북한 방송교류의 평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는 방송교류를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방송교류' 그 자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추진 배경과 목적, 성과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교류를 평가하면서 '방송교류' 그 자체를 '성공' 또는 '실패'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는 '어떤 유형의 방송교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는 결과보다 교류 과정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 남북한 방송교류가 긴 시간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며, 방송교류가 진행되는 과정도 교류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교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괏값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교류의 명분을 '교류의 과정에서 얻은 성과'에서 찾으려고 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교류 과정'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과정이 포함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이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다. 남북한 방송교류는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았으며 정치적인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남북한 방송교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가 남북한의 방송교류, 특히 공동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교류를 평가하는 이유는 방송교류 분야에서 공동제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반도에 국한된 추세는 아니다. 국제 사회의 방송교류도 공동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의 방송교류도 결국에는 공동제작의 형태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제작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공동제작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방송교류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지난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방송교류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관련 자료도 정리되어 있지 못하였다. 연구자는 분절되어 있던 방송교류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방송교류의 특성과 성과, 한계를 짚어 보았다. 두 번째 연구방법으로 공동제작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도출한 평가지표는 '교류의 형태', '방송(송출) 지역', '소재의 다양성',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총 다섯 가지이다.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세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것은 단순히 점수가 높은 교류를 잘된 교류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제작에 대한 평가가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 평가로 나눠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으며, 세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것은 평가 지표를 정량화하여 개별 사례들의 특성을 시각화하고 평가와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본 장의 3절 연구 방법

에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유형별 특성과 성과를 검토하고,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연구자가 도출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남북한 방송교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이후에 진행될 방송교류가 나아갈 지향점을 고민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 방송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계기가 마련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남북한 공동제작에 대한 평가가 방송교류 주체들에게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방송교류를 개별 사례로 접근하기보다는 '방송교류' 그 자체를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즉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평가, 분석하기보다 '방송교류' 그 자체를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남북한 방송교류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방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되었다. 다양한 형태와 분야에서 진행된 2000년대 중후반의 방송교류 사례를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교류 초기에 활발하게 진행된 방송영상물 교류, 취재·제작 지원을 연구 범위로 했기 때문에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송교류인 공동제작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대부분 기관에서 발행한 정책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구는 주로 당시 방송교류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협력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방송 관계자가 남북한 방송교류에 참여한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선행연구가 있다. 방송교류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의 시각에서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당시의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

구의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교류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비판적 시각은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종원, 정길화의 선행연구는 남북한 방송의 공동제작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이는 2000년에 작성된 논문으로 당시 진행된 방송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안적 모델로서 공동제작을 제안하였다.[1] 하종원, 정길화는 선행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남북한의 방송교류 사례를 설명하였으나, 교류가 논의 중이거나 진행 초반인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평가,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0년 이후 제작된 다양한 방식의 방송교류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우승, 박경세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상파 방송 3사, 독립프로덕션 등 각 주체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교류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망 등의 방송 기술을 남북한 방송교류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2] 이 선행연구 역시 남북한 방송교류 초기에 쓰인 논문으로 2001년 이후에 진행된 방송교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진행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와 분석보다는 단순한 사례 나열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한국방송진흥원이 발행한 정책연구로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연구의 무게를 두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진행된 방송교류 사례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다. 김철완, 김성옥, 서소영은 방송 통신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분석하고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3] 이 선행연구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남북한 방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진행된 방송교류의 모든 유형과 분야를 망라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방송교류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방송교류'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1) 하종원·정길화, "남북 방송공동제작의 시안적 모델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2000.8).

2)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서울: 한국방송진흥원, 2001).

3)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과천: 방송통신위원회, 2014).

방송 관계자가 교류에 참여한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은 '남북한 합동중계방송 사례 연구: 남북정상회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중심으로'[4],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5],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6]이 있다. 이 선행 연구는 남북한 방송교류를 개별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방송교류의 진행 과정을 관계자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나,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 선행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흩어져 있던 남북한 방송교류 사례를 종합한 뒤 방송교류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또, 선행 연구가 '방송교류' 그 자체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는 남북한 방송교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어려웠으나, 본 연구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4) 김점식, "남북한 합동중계방송 사례 연구: 남북정상회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5)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6)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2011).

제3절 연구 방법과 구성

1. 연구 범위와 대상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된 남북한 방송교류 전체를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특히 공동제작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전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 2001년, 2006년, 2018년에 발행한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의 방송교류 프로그램 목록[7]과 MBC통일방송추진단이 작성한 「북한 취재·제작의 실제」[8]의 방송교류 프로그램 목록, 이우승 등의 선행연구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9], 박영정 등의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10], 김철완 등의 「방송통신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11]에 기술된 방송교류 프로그램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자료를 통해 수집한 방송교류 사례 84건은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개별 사례로 분류할 수 없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사례는 방송교류 사례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교류 사례에는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방송일시 등 일부 데이터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정리하였다.

---

7)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1), pp. 7-9,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6), pp. 25-27, 255-302,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18), pp. 29-32, 452-512.

8) MBC통일방송추진단, 『북한 취재·제작의 실제』(서울: MBC통일방송추진단, 2020), pp. 139-148.

9)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p. 34-37.

10) 박영정 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pp. 157-227.

11)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pp. 32-35.

가. 방송교류의 정의와 분류

방송교류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방송교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남북한 방송교류란 “남북한의 방송 주체들이 방송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1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13]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은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과정 전체를 포함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에 따르면 남북의 교류 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14] 방송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한 방송교류의 개념을 정리하면, 공·민영의 방송사업자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기자, PD, 작가 등 방송사업 종사자가 남한과 북한의 프로그램 송출을 위해 왕래·접촉하면서 관련 설비 또는 시설 등을 반출·반입하고 방송 관련 상품·용역 등을 교역하고 방송 관련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1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방송 주체들이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에 참여하여 실제 프로그램의 송출까지 완료된 사례를 남북한 방송교류의 사례로 정의하였다.

---

12)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2018), p.87.

13) 방송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19326,20230406)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르면 "4.“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aw.go.kr/법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7564,20201208)

15)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p. 87.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유형을 방송영상물 교류, 주요 행사 중계, 취재·제작 지원, 공동제작,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분류 기준은 2002년에 남한의 방송위원회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체결하기로 합의한 방송교류 기본합의서의 개별 조항[16]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정의에서 저널리즘의 영역은 배제하였다. 저널리즘[17] 영역의 프로그램, 뉴스는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저널리즘의 결과물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저널리즘의 영역에 속하지만, 내용이 아닌 형태를 의미하는 '뉴스 생방송'은 기술, 인력 등이 포함된 활동으로 보고 방송교류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였다.

나. 공동제작의 정의와 범위

방송교류의 정의 및 분류와 함께 공동제작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방송교류의 분야 중에서 공동제작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공

16) 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안의 개별 조항을 살펴보면 당시 방송위원회와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논의한 방송교류의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안은 제1조 상호비방금지, 제2조 남북 방송교류 위원회 설치, 제3조 남북한 방송망 통합, 제4조 남북 공동위성TV채널, 제5조 상주 특파원, 제6조 취재·제작지원, 제7조 방송영상물 교류, 제8조 공동제작, 제9조 주요행사 중계, 제10조 외국 영상물 방영권 공동 활용, 제11조 외국 영상물 한국어 더빙권 공동이용과 동시녹음 지원, 제12조 방송자료 공유, 제13조 방송인력 교류 추진, 제14조 방송학술 발전지원, 제15조 방송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당시에 실제 프로그램이 제작, 송출까지 완료된 제6조 취재·제작지원, 제7조 방송영상물 교류, 제8조 공동제작, 제9조 주요행사 중계, 제10조 외국 영상물 방영권 공동 활용 등 총 5개를 항목을 기준으로 방송교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pp. 32-45.

17) 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논평하는 활동이다. 저널리즘 자체는 '사실'이나 '사건'을 다루는 영역으로 교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저널리스트 간의 인적 교류, 저널리즘과 관련한 학문적 교류는 방송교류에 포함될 수 있다.

동제작이 방송교류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형태이며,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서 제작 형태와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범위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초로 국제 공동제작에 관한 개념을 정의한 영국의 BBC는 “공동제작은 제작비와 제작 업무를 분담하여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그 상품의 제 권리를 공동제작자가 공유한다”라고 공동제작의 개념을 제시하였다.[18] 윤선희는 공동제작에 대해 “공동제작의 파트너들이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혹은 일련의 영상제작물의 아이디어 개발, 연출, 기술 요원 및 다른 시설 제공을 통해 제작에서 상호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19] 김혜준 등은 공동제작에 대해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공동출자(co-financing)의 개념과 재정을 포함하여 기획, 제작의 과정을 공유하는 공동제작(co-production)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20] 공동제작은 형태가 점차 복잡해지고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선 연구자들이 설명한 공동제작의 정의에 따르면 남북한 방송교류의 사례 중 공동제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는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기도 한다. 남북한의 분단이 길어지면서 체제와 시스템이 달라졌고, 경제력과 문화의 차이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공동제작을 광의의 개념과 남북의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동의 참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획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해 원작과 대본의 제공, 시설과 장소의 제공, 제작진과 기술진 등 인적 자원의 공동작업, 출연진 공동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남북이 프로그램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모두 공동제작으로 판단하였다.

---

18) 송일준, "한국 텔레비전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방안," 『연세커뮤니케이션즈(Yonsei communications)』, 6호(1997), p. 95.

19) 윤선희, 『다매체시대 영상산업의 문호 개방과 국제 공동제작연구』(서울: 한국방송진흥원, 1999), p. 5.

20) 김혜준 외,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연구』(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1), pp. 19-20.

2. 연구 방법

가.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 개발

본 연구는 남북한의 방송교류 중에서도 공동제작을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으나, 연구자가 공동제작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동제작이 방송교류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방송교류의 여러 유형들이 결국에는 공동제작의 형태를 지향하며 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산업 내에서 공동제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제작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제작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동제작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각 단체 또는 조직, 개별 연구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준과 지표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동제작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들고, 세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배점에 따라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평가하고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어떤 방식으로 평가 지표가 도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한 공동제작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기와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랐으며, 평가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문화교류의 목표, 글로벌 공동제작의 지향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공동제작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방송교류, 국제문화교류라는 단어에서 '교류'는 '교환'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국제문화교류에서는 협업, 협력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는 교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공동으로 생산하여,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지속성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1] 교류의 목표를 통해서 국제문화교류가 교류의 형태와 지속가능성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는 글로벌 공동제작은 공동제작 파트너 간의 재정적 자원을 통합하고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며, 인적, 기술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22] 다시 말해서, 전통적 의미의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작의 형태나 공동제작의 사업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면서 적합성, 독창성(비중첩성), 지속가능성, 개별성, 확산 가능성을 평가 지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사업이 합목적성에 맞게 추진되었는가?', ' 독창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벤트성,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지자체의 비교 우위를 고려하였는가?', '북한의 타지역, 국내 다른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한가?' 등 공적예산과 기금이 투입된 공적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23]

앞서 설명한 국제문화교류의 목표, 글로벌 공동제작이 지향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도출한 남북한 공동제작의 평가 기준은 '교류의 형태', '방송(송출) 지역', '소재의 다양성',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총 5가지이다. 각 지표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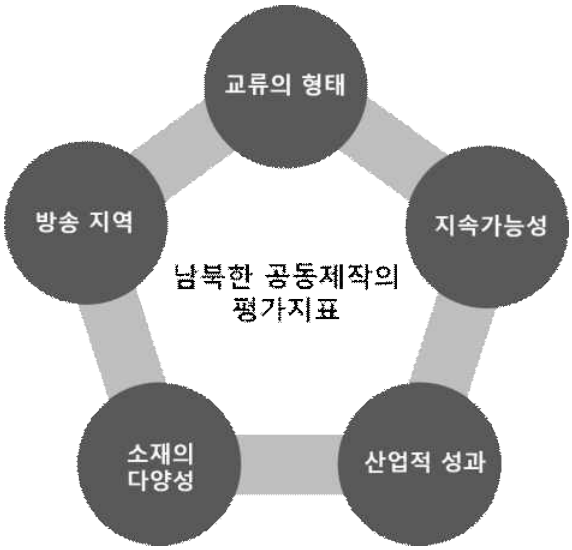
---

21) 김혜인 외,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요약본』(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5), pp. 35-37,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80&pDataCD=0406000000&pType=02(검색일: 2024년 6월 2일)

22) "How international co-productions work," 『Stage32』, https://www.stage32.com/blog/how-international-co-productions-work-2378(검색일: 2024년 6월 2일)

23) 이성우·정성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경기: 경기연구원, 2020), pp. 39-42.

【그림 1-1】 남북한 공동제작의 평가지표



연구자가 제시한 남북한 공동제작의 첫 번째 평가 지표는 '교류의 형태'이다. 방송교류는 영상물이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높고, 낮은 단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방송교류는 필연적으로 기술, 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하기도 하고, 기획, 대본, 촬영, 편집, 분장 등 방송 제작 기술 분야와 깊이 있는 교류가 진행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공동제작이 이러한 방송교류의 특성을 살려서 방송 분야 안팎에서 교류가 확장되고 교류의 형태가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두 번째 평가 지표는 '방송(송출) 지역'이다. 방송교류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사용된다. 오기현은 동질성 회복, 이질성 확인의 문제가 방송교류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통합의 과정에서 남북의 공감대 확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24] 남북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여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방송교류가 교류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서로에 대한 이

24)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p. 8.

해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남북한의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영상물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방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송출 지역을 평가의 지표로 삼았다.

세 번째 평가 지표는 '소재의 다양성'이다. 남과 북은 오랜 시간 동안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다. 단절된 시간만큼 관심사가 멀어지기도 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남북한 방송교류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방송교류의 소재가 반드시 민족의 동질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소재를 선정할 때는 남북한 시청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북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검열되고 통제된 소재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소재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평가지표는 '산업적 성과'이다. 방송교류 초기의 상황과는 다르게 최근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한의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교류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는 교류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방송사들도 투자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적 성과에 대한 지표는 남과 북 모두에게 산업적 성과를 가져다주고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평가지표는 '지속가능성'이다. 남북한 방송교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방송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 문제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방송교류에 참여한 방송주체들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이 제작된 시기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 방송교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방송교류의 제작 방식과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을 내포하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프로그램

제작 방식과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을 도입하였는가?', '지속가능성을 구현하였는가?'를 포함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나. 세부 항목 및 배점

평가 지표의 세부 항목은 각 4단계로 나누고,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섯 가지 평가 지표에 따른 항목별 배점은 아래 【표 1-1】와 같다.

【표 1-1】남북한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

남북한 공동제작의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
1. 교류의 형태 1점. 일방이 기획한 내용에 따라 영상을 촬영해 주는 외주제작의 형태 2점. 장소 및 방송 장비 대여, 출연자 참여 등 낮은 단계에서의 공동제작 3점. 과학 기술, 방송 제작 기술을 공유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 4점.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권리를 나누는 완성된 형태의 공동제작
2. 방송(송출) 지역 1점. 남과 북 모두 송출하지 못함 2점. 남 또는 북 한쪽에서만 방송함 3점. 남과 북 모두에서 방송함 4점. 제한 없이 남과 북에서 여러 차례 방송함
3. 소재의 다양성 1점. 소재 선택의 자유 없음 2점. 검열, 통제된 비정치적 소재 3점. 정치, 이념, 인권을 제외한 소재의 제한이 없음 4점. 정치, 이념, 인권을 포함해 소재의 제한이 없음

4. 산업적 성과

1점.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지원

2점. 방송교류를 위한 방송 인프라 구축

3점. 남과 북 모두가 산업적 성과를 거둠

4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5. 지속가능성

1점. 단편적 일회성 교류

2점. 연속성 있는 교류

3점. 사업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교류

4점. 기구, 법제도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교류

교류의 형태에 대한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남 또는 북 한쪽이 기획한 내용에 따라 영상을 촬영해 주는 외주제작의 형태는 1점으로 배점한다. 장소 및 방송 장비 대여, 출연자 참여 등 낮은 단계의 공동제작은 2점, 과학 기술, 방송 제작 기술, 인적 교류를 공유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은 3점,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권리를 나누는 완성된 형태의 공동제작을 4점으로 배점한다.

방송(송출) 지역에 대한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 모두에 송출하지 못한 경우는 1점, 남한 또는 북한 한쪽에서만 방송한 경우는 2점,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방송한 경우를 3점, 남한과 북한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여러 차례 방송한 경우는 4점으로 배점한다.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 각자의 체제 선전을 소재로 하거나, 소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1점, 역사, 자연, 음악 등 검열, 통제된 비정치적인 소재로 한정하는 경우는 2점으로 배점하였다. 최근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정치, 이념, 인권 등의 민감한 소재를 제외하고

소재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3점으로 배점한다. 정치, 이념, 인권을 포함해 소재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4점으로 한다.

산업적 성과에 대한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지원은 1점으로 남북한 방송교류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송교류의 대가로 북한에 방송 제작 장비를 현물로 제공하고, 제공한 현물이 남북한 방송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경우는 2점으로 한다. 남북한 방송교류가 남과 북 모두에게 산업적 성과를 가져다준 경우는 3점으로 배점한다.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산업적 성과를 얻고 글로벌에서 경쟁력까지 확보한 경우는 4점으로 배점한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성과가 시스템화되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에서 산업적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단편적 일회성 교류는 1점, 연속성이 있는 교류는 2점을 배점하였다. 연속성이 있는 교류 중에서도 사업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로 만든 사례는 3점, 지속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기구, 법제도를 통해 시스템화한 사례는 4점으로 배점한다.

앞서 정리한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에 따라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 드라마 '사육신',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남북한 방송교류의 대표 사례로 선정하고 각각의 사례를 평가하였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에 점수를 부여한 것은 평가 지표를 정량화하여 방송교류 개별 사례의 특성을 도출하고, 개별 사례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가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지표와 세부 항목의 배점은 연구자의 조작적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지표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북의 방송교류, 특히 공동제작을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자가 작성한 평가 지표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남북의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는 남북의 방송교류가 다음의 단계로 전개되었을 때 목적에 따라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이 있는 추가 논의를 통해 평가 체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 객관성과 정확성을 부여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역할과 전개 과정을 짚어 보았다. 제3장의 남북한 방송교류의 유형 연구에서는 방송교류를 간접적인 교류 유형의 방송영상물 교류,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직접적 교류 유형의 주요 행사 중계, 취재·제작 지원, 공동제작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과 성과, 한계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인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 드라마 '사육신',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공동제작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개별 사례가 어떠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방송교류의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역할과 전개 과정

제1절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의 방송의 역할

남북의 사회문화교류는 70여 년 분단의 시간을 넘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하여 남북의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가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통일의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할 때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25]

방송교류 또한 사회문화 교류가 가지는 의미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송교류는 중요한 시기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방송교류의 문이 처음 열렸을 때 남북은 50여 년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동질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였다. '조경철 박사의 52년만의 귀향(SBS)' , '민족통일음악회(MBC)', '북녘땅, 고향은 지금(KBS)' 등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주요 주제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또, '오! 통일코리아(MBC)', '조용필 정주영류경체육관 단독공연(SBS)'처럼 이질성 극복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분단의 시기가 긴 남과 북에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느 분단국가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방송교류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의 방송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교류는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방송교류에 대해서 정치에 종속된 일회성 행사라는

25) 김영란,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교류 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서울시: 솔과학, 2021), pp. 39-40.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방송의 대중적 파급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문화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지상파 3사(KBS, MBC, SBS), 종편 4사(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채널 2사(연합뉴스, YTN)을 통해서 중계되었다.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순간 시청률이 34.06%을 기록하였는데,[26]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방송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유튜브,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시대가 되었으나 방송은 여전히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론을 형성하는 대중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방송교류가 가지는 장르의 복합성과 장르 내 확장성이다. 방송교류는 방송교류 자체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 문화·예술, 학술·교육, 종교 등 사회문화의 다른 분야들과 결합하여 진행된다. 그동안 만들어진 대부분의 방송교류 사업은 체육, 문화·예술, 학술·교육, 종교 등과 결합하여 공연, 다큐멘터리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며, 각 분야의 교류 성과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였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 정치 등 타 분야와 협력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의 경우, 문화·예술, 방송교류의 영역에도 포함되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교류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렇게 방송교류의 복합적 특성으로 인하여 방송교류는 여타 사회문화 교류의 촉매제가 된다. 방송은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이 서로 결합되고 연계되는 과정을 만들어 냈다.[27] 또한, 남북한 방송교류는 교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술, 통신 등 방송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방송교류 내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방송교류를 통해 남한의 방송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전수하기도 하

26) "[남북정상회담] 군사분계선·첫 악수 시청률 34.06%," 『연합뉴스』, 2018년 4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7056600005(검색일: 2023년 10월 2일).

27)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 10.

였다.

방송교류의 세 번째 역할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철저히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의 정보를 남한 사회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적인 역할 이외에도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북한의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방송의 역할은 남북 화해와 협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평화의 공존과 국민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8)]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방송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방송교류의 중요한 대의명분이 되며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중요한 도구이다.

제2절 남북한 방송교류의 전개 과정

1. 방송교류의 모색기: 1998년 이전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이 만든 냉전 체제 속에서 대결과 긴장을 이어 나갔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긴장된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한에 언론교류를 제의하였다. 남한은 북한의 교류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남한 정부는 북한을 공식적인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언론교류 제의를 남한 체제를 교란하려는 북한의 대남 공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29)]

198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력의 우위를 점한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

28)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p. 36-46.

29)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18), p. 26.

언론교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으로 언론교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도 있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독일 통일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경험하면서 체제 유지와 내부 결속을 위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30] 한편, 남한 정부는 냉전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부각된 방송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방송교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의 노태우 정부가 1988년 '7.7 선언'을 발표한 뒤에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자료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불온간행물 취급지침」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었던 북한 자료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개방되었다.[31] 이를 계기로 MBC와 KBS는 각각 '통일전망대'와 '남북의 창'이라는 북한 전문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32] 이 시기부터 남북한의 방송교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KBS는 1988년 11월에 있었던 남북국회회담 예비 접촉을 실황중계 하였다. 이 실황중계는 취재기자 없이 영상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황중계로서의 한계는 있었으나, 남북한 방송교류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1990년 평양에서 개최된 통일축구경기가 녹화중계되었으며[33],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의 평가전이 남과 북에 동시 생중계되기도 하였다.[34]

남북한 방송교류가 모색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35]의 발효이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

30) 위의 책, p. 26.

31) 이향은, "북한자료 관리와 학술적 활용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7.

32)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 13.

33)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18), p. 26.

34) 김영란,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p. 136.

35)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에는 경제, 사회문

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6조는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6조는 사회문화 분야, 언론·방송 분야의 교류·협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다시 경색되었고,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교류는 민간이 주도하게 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 프로듀서 연합회, 기자협회 등의 언론단체들이 방송교류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36]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체제 유지 등의 문제로 방송교류, 언론 개방을 꺼렸기 때문에 당시의 방송교류는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1995년에는 MBC가 방송사 최초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협의와 답사를 진행했다. 이후 방송사, 신문사, 제작사 등 방송교류의 주체들이 직접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KBS가 중국 랴오닝국제TV전파공사 기록영화부에 영상을 의뢰하고, 랴오닝국제TV전파공사가 다시 북한의 용남녹화편집사에게 촬영을 요청하는 3자 공조 형태가 시도되었다. KBS가 만든 구성안에 따라 북한 측이 촬영한 백두산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고, 이 영상으로 일요스페셜 ‘북한에서 본 백두산’이 제작되었다.[37] 이 시기에는 아직 본격적인 방송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협의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교류의 내용이 구체화 됐고 실질적인 교류의 형태도 나타났다. 이 시기에 진행된 남한 방송사의 다양한 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유화적 대북정책과 맞물리면서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큰

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남북기본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8년 7월 23일;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46&sitePage=(검색일: 2024년 1월 23일)

36) 하종원·정길화, "남북 방송공동제작의 시안적 모델 연구,"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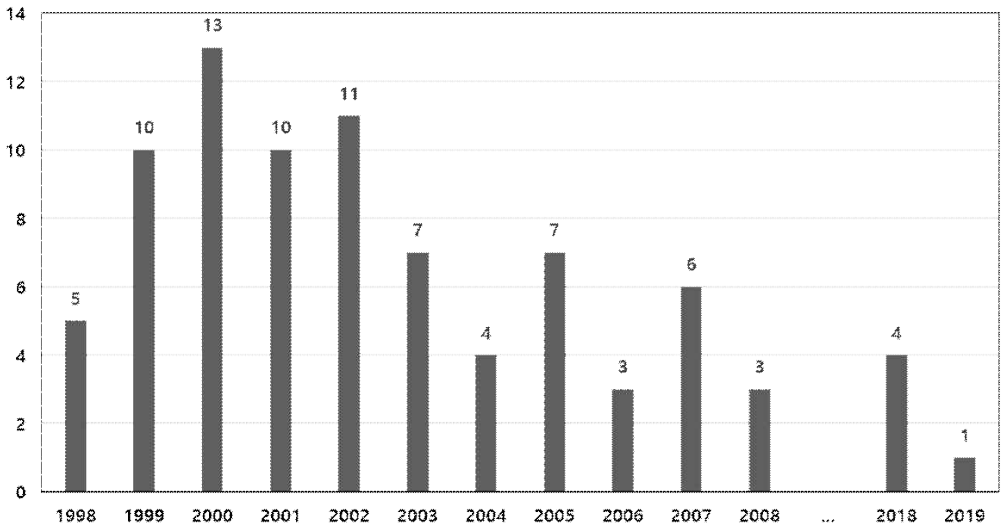
37) "KBS '북한에서 본 백두산' 첫 공개," 『매일경제』, 1997년 9월 12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788323(검색일: 2023년 10월 16일).

역할을 하였다.

2. 방송교류의 활성화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그림 2-1】 연도별 남북한의 방송교류 횟수

(단위: 건, 총 84건)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증가했으며, 방송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과제[38]를 발표하였는데, 97번째 과제로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교류와 연결되는 구체적 실행안으로는 “예술단 남북 합동 공연 및 공동 개최 추진”, “남북 간의 체육 교환경기 정례화”, “명승 자연풍물 등 비정치 분야 방북 취재 및 공동 프

38)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가 추진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어려운 오늘에서 밝은 내일을 여는 실천계획”,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252(검색일: 2023년 12월 29일).

로그램 제작” 등이 제시되었다. 100번째 과제로는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북한의 라디오, TV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방송사와 방송 관계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중앙일보 부설 통일문화연구소, 독립프로덕션 스포츠 아트가 방북 당시에 촬영한 영상물을 활용하여 ‘최초의 답사보고 북녘산하, 북녘유산(KBS)’, ‘그리운 북한땅, 우리문화답사기(Q채널)’가 제작되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통일 농구대회 1차 대회(MBC, SBS)’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위성을 통해 국내에 생중계되었다.[39]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으로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서, 음반, 비디오 등도 남북한 교역의 대상물품으로 고시됨에 따라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라고 해도 정치성, 이념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40] 방송사들은 적극적으로 북한 영상물을 국내로 반입해 방송하였다. 극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SBS)’, ’림꺽정(KBS)’, 금강산 기록영화 ‘그리운 금강산(KBS)’을 비롯해 ‘온달전(MBC)’, 애니메이션 ‘북한애니메이션의 세계(EBS)’, ‘특선 북한 서커스 평양교예단 공연 실황(MBC)’ 등의 북한 영상물이 남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남북한 방송교류는 방송사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의 방송교류는 대부분 남측의 중개업자와 북측의 대남 협력기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41]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

39)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pp. 9-10.

40)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 15.

41) 조선아시아태평양평아위원회는 1994년 5월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수교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확대 및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의 경제협력 업무와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서 당국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민간기구의 형태로 담당하였다. 김갑식 외, 『북한지식사전』(서울: 통일교육원, 2021),, pp. 692-694.

다. 또한 남한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북의 실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협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 당국에 취재 허가를 받거나 인력을 지원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42]

남북의 방송교류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남북정상회담 두 달여 뒤인 8월 11일에는 남측의 언론사 사장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언론기관과 '남북 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언론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접촉 창구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방송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43] 또한, 중개업자가 아닌 방송사가 직접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는 형태의 교류가 자리를 잡았으며, 북한의 방송관계자도 남한 영상물의 제작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방송교류가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2000년에만 13건의 남북한 방송교류가 진행되었다. 공연, 스포츠 등의 주요 행사가 중계된 것을 비롯해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고, 백두산과 평양에서 생방송 뉴스를 송출하였다. 남측의 KBS가 기획하고, 북측의 조선중앙TV가 영상을 촬영하는 형태의 '북녘땅 고향은 지금(KBS)'이 3부작으로 제작되었고, 남북한의 방송 인력이 공동으로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뉴스 프로그램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KBS)'가 생방송 되었다. 특히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남과 북의 인력이 공동으로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것은 물론, 생방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S의 인력 21명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18명이 참여한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백두산과 서울을 위성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북측의 평양중앙TV 기

---

42)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 34.

43) 2000년 8월 11일 남측의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하여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① 통일과 민족단합에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 전개, ② 비방 중상 중지, ③ 언론분야 교류 협력 추진, ④ 남북 언론접촉창구 마련⑤ 북측 언론기관 대표의 서울 방문 등이다.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p. 17-18.

자, 사회과학원 연구소 부소장, 백두산 천지전문가 등이 남측의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였다.[44] 긴 분단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은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시기였다.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방송교류는 뉴스 생방송, 다큐, 공연,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의미 있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기획, 제작되었다. 제도적으로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대북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 방송 3사는 새롭게 신설된 조직을 통해 북한과의 방송교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45] KBS는 '5대 방송교류 협력 사업'[46]을 통해 북한과 활발하게 방송교류를 전개하였으며, 공영방송사로서 방송교류를 통해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미국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빗댄 2002년의 발언에 이어, 제2연평해전이 남북교류의 부정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남북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남한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한 덕에 남과 북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8월에는 남한의 방송위원회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방송교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으나, 남과 북이 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안을 통해 방송교류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부산아시안게임에 대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남북의 방송교류는 다시 한번 활기를 찾는다. 남한의 방송사들은 대규모 방송 인력을 평양에 보내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KBS)'와 음악쇼 '이

---

44)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p. 6-7.

45)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p. 18-20.

46) KBS가 2001년에 추진한 5대 방송교류 사업에는 '특별기획 6시 내고향 - 여기는 평양입니다', 'KBS 일요스페셜 -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보도특집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빗장을 연다', '대동강 밸리의 꿈', 자연다큐멘터리 '백두고원을 가다', '역사스페셜 - 북한 문화유산 시리즈(8부작)'이 포함된다.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1), p. 51.

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MBC)'를 제작했다. 일주일 차이로 제작된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KBS)'와 '오! 통일코리아(MBC)'는 북측에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다. 스포츠 중계를 제외하면 북한 지역에서 생방송 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쇼 '오! 통일코리아'는 남한 대중가수의 공연이 최초로 조선중앙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003년부터 본격화된 북핵문제[47]로 인해 남북의 방송교류 또한 점차 줄어들었으며, 남측 방송사의 교류 제안도 소극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사전에 남측과 합의된 방송교류 사업을 완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자연 다큐멘터리 '자라의 생존 법칙(MBC)', '개마고원의 불개미'와 드라마 '사육신(KBS)',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뉴욕필하모닉 평양공연(MBC)' 등이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경색된 남북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스템에 의해 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다.

교류 활성화기의 남북한 방송교류는 성과와 함께 남북한 방송교류의 근본적인 한계도 보여주었다. 냉전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관계, 남북의 교류는 여전히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정치 상황에 따라 방송교류가 영향을 받았다. 국내외의 정치 상황에 남북의 방송교류가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채택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저작권법 등의 법제도는 물론 협의기구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2008년 이후에도 방송교류

47) 북한의 핵사찰 비협조와 미국의 경수로 공사 지연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으며,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부인하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NPT정신'을 위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김갑식 외, 『북한지식사전』, p. 844.

는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송사들의 과열 경쟁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당시 남한의 방송사들은 남북한 방송교류의 실질적인 효과, 성과보다는 '최초' 경쟁에 몰두한 측면이 있었다. '최초의 음악쇼 프로그램', '최초의 공동제작', '최초의 생방송 프로그램', '최초의 평양 공연' 등 의미 없는 '최초' 수식어가 남발되었다. '최초' 경쟁이 남한 주민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마케팅의 일부이기도 했으나 '최초'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가 지출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3. 방송교류의 조정기: 2008년 이후

북미는 6자회담의 '10.3 합의문'에서 채택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였으며, 미국 부시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결과로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하였고,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방송교류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남북의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선비핵화론을 앞세워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였다. 그 결과는 4차, 5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로켓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남북 관계는 복원될 수 없었으며, 전면 중단되었던 사회문화교류도 재개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성공했고, 남북 관계는 잠시 해빙기를 맞이하였다. 문화, 체육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었다.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 '봄이 온다(MBC)'가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계되

었는데, MBC가 참여했던 평양특별 공연 '오! 통일코리아(MBC)' 이후 16년 만에, 대중가수 '조용필 단독공연' 이후로 13년 만에 북한에서 열린 대중 공연이었다. '봄이 온다' 공연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의 고위 관료들도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하였다. 평양에서 15년 만에 열린 남북통일농구대회가 중계방송 되었고, 중국 쿤밍에서 열린 남북축구 친선교류전이 방송되기도 하였다. 방송사들은 평양지사와 특파원 파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가장 빠르게 북한과 남북의 언론교류 및 평양지국 개설을 논의한 데 이어, 연합뉴스, KBS, MBC, SBS 등도 지사 설립을 논의하며 방송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48]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은 북한의 반응과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큰 진척 없이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와 방송교류는 다시 중단되었다.

48) 김도연, "남북 언론 교류 어디까지 왔나_남 '평양지국 목표로 동분서주'…북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신문과방송』, 2018년 9월호 No. 573(2018), pp. 54-57.

제3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유형 연구

제1절 간접적 교류 유형

1. 방송영상물 교류

1998년 5월, 통일부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남북의 협력사업을 비영리적 활동에 국한하였던 부분을 수정하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49] 6월에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북한의 도서, 음반, 비디오 등을 남북교역대상 물품으로 고시하였으며, 9월에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하여 정치성, 이념성이 없는 북한의 영상물은 국내 반입 및 일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한 정부의 조치로 방송영상물 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북한 영상물의 TV 방영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위한 북한 영상물 수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것은 SBS였다. SBS는 방송 사상 처음으로 북한 영화 '안중극 이등박문을 쏘다'를 방영하였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북한의 백두산창작단이 제작한 극영화로 인민배우 출신의 엄길선 감독이 1979년에 만든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과 일제의 수탈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으로 평가받은 작품으로 영화를 구성하는 방식과 주제가 우리의 역사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50] SBS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시작으로 '홍길동(2000년)', '임진왜란(2002년)'을 방송했으며, KBS는 '임꺽정(1998년)'

49) 이우영·손기웅·임순희,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0-11.

50) "SBS 북한영화 '이등박문을 쏘다'최초 안방방영," 『중앙일보』, 1998년 8월 2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3690620#home(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과 ‘그리운 금강산(1998년)’을, MBC는 ‘온달전(1999년)’, ‘평양교예단 공연실황(1999년)’, ‘사랑 사랑 내 사랑(2000년)’을 방송했다.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서 방송된 사례도 있다. 조선중앙TV는 2000년 11월 3일 E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1)’을 방영했다.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1)’ 영상은 EBS의 박홍수 사장이 북한에 전달한 것[51]으로 남한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첫 사례이다. 또 MBC가 제작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6.25일본참전의 비밀’ 편도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되었다. 방송영상물 교류 사례에서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서 방송된 사례는 단 2건으로 극히 드물었으나, 북한이 남한과의 방송교류에 있어서 소극인 태도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성, 이념성이 드러나지 않는 역사, 자연과 관련된 주제의 영상물은 남한의 영상물이라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작권의 문제로 방영되지 못한 ‘불가사리’를 제외한 총 12건의 방송영상물 교류 중 북한의 영상물이 남한에서 방송된 사례는 10건이다. 남한에서 방영된 북한 방송영상물의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극영화를 포함한 드라마가 6건, 자연을 다룬 교양물이 1건, 애니메이션이 2건, 공연실황이 1건이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역사소설이나 고전소설을 소재로 한 드라마, 극영화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소설이나 고전소설은 이념성을 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북한의 영화가 다른 방송 분야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방송영상물 교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SBS의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시청률은 7.6%, KBS의 ‘임꺽정’ 시청률은 14%로 방송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52]

---

51) “북, EBS 제작 다큐멘터리 방영,” 『매일경제』, 2000년 11월 3일; https://www.mk.co.kr/news/all/2402573(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52) 1998년 당시 MBC의 일일연속극 ‘보고 또 보고’는 최고 시청률 57.3%, SBS의 수목드라마 ‘미스터Q’는 최고 시청률 45.3%를 기록했다. ‘보고 또 보고’, ‘미스터Q’와 북한 드라마의 편성 시간대가 다르지만, 처음 수입되어 방영되는 북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

방송영상물 교류의 낮은 시청률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북한 영상물은 저작권과 판권에 문제가 있었다. '불가사리', '사랑 사랑 내 사랑'은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을 때 만든 작품으로 신상옥 감독은 영화의 저작권이 북한이 아니라 감독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53] 또한 '임꺽정', '온달전'은 북한영상물 수입 업체 사이의 판권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있었다. 국내로 영상을 수입하는 복수의 업체들은 자신들이 북한 영상물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 회사가 국내 방송사와 방영 계약을 맺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방영을 한 이후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사가 영화 판매에 대한 권한을 여러 업체에 나눠주고 동시에 판권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54]

초기의 방송교류에서 방송영상물 교류가 북한 바로 알기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 남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55] 그러나 북한 영상물에 대한 낮은 시청률과 저작권 및 판권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남한 방송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방송교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방송영상물 교류는 2002년 SBS의 '임진왜란'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거쳐 현재는 법적으로 체계화된 형태로 방송영상물 교류가

청률을 기록했으며, 북한의 영상물이 남한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北 영화 방영' 준비 부족했다," 『한국일보』, 1998년 9월 3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809030017012506(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북한영화 방영 "재미 못봤다"," 『매일신문』, 1998년 11월 16일; https://www.imaeil.com/page/view/19981116144751525 83(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53) "[미디어 다시보기] 북영화 '불가사리'TV방영 진통," 『조선일보』, 1999년 1월 21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9/01/21/1999012170401.html(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54) "이중 계약에 멍든 북한 영화 수입," 『시사저널』, 2000년 3월 30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62(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55)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p. 36-46.

진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남한의 방송사들은 북한과 계약을 맺고 조선중앙TV의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 방송사를 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하는 민족화해협의회 저작권사무국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남한 방송사는 남북이 합의한 저작권료에 따라 북한의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남한의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채 남한의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56] 미흡한 형태이지만 남북 방송교류의 활성화기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방송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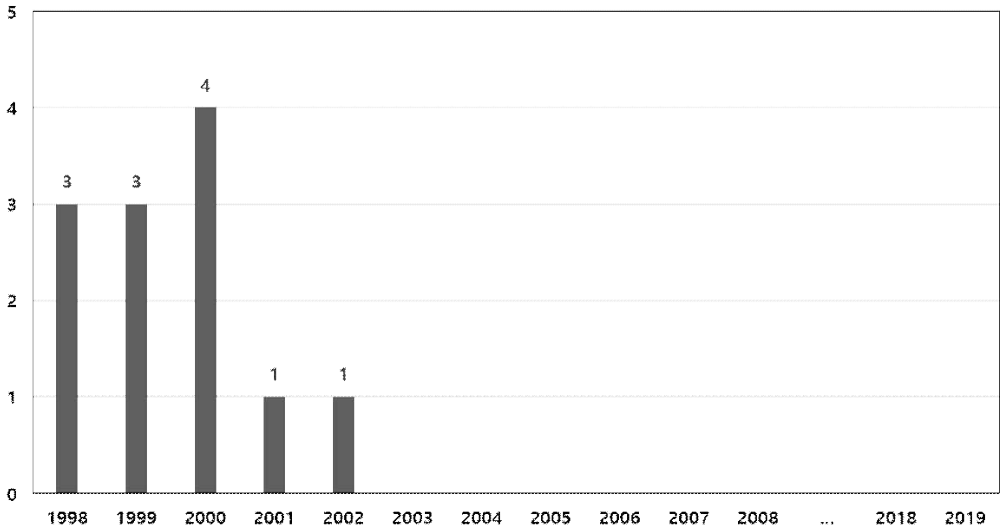
남북의 방송교류가 재개되더라도 방송영상물 교류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 송출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남북의 방송 제작 기술과 미감의 차이로 인하여 북한 영상물을 남한에서 송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56) “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 『미디어오늘』, 2016년 4월 20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41(검색일: 2024년 1월 12일).

【그림 3-1】 연도별 남북한의 방송영상물 교류 횟수

(단위: 건, 총 12건)



【표 3-1】 남한에서 방영된 북한 영상물

방송일		방송사	분야	프로그램 제목
1998	1998.09.01	SBS	드라마(극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1998.10.17-11.15	KBS	드라마(극영화)	임꺽정
	1998.11.17	KBS	다큐멘터리	그리운 금강산
1999	1999.01.03	MBC	드라마(극영화)	온달전
	1999.01.03	인천방송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읽는 북한사회 제1편 북한애니메이션의 세계
	1999.02.15	MBC	공연실황	특선 북한 서커스 평양교예단 공연 실황
2000	2000.06.10	MBC	드라마(극영화)	사랑 사랑 내사랑
	2000.06.10	SBS	드라마(극영화)	홍길동
	2000.06.11	EBS	애니메이션	애니토피아 북한애니메이션특집
2002	2002.08.13-15	SBS	드라마(극영화)	임진왜란
-	미방영	MBC	드라마(극영화)	불가사리

【표 3-2】 북한에서 방영된 남한 영상물

방송일		방송사	분야	프로그램 제목
2000	2000.11.03	조선중앙TV	다큐멘터리	(EBS 제작)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1)
2001	2001.06.21, 29	조선중앙TV	다큐멘터리	(MBC 제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25 일본 참전의 비밀'

2.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남북 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제10조에는 외국 영상물 방영권 공동활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57] 이는 남한의 방송사 또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외국의 영상물을 구매하는 경우, 상대방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방영권리를 확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한이 한반도 전체의 중계권을 구매하고 북한지역에 방영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에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월드컵 경기를 25회 방송했다. 당시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 준결승에 오른 것은 남조선이 처음"이라는 북한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한국-독일 준결승전을 비롯해 여러 편의 남한 대표팀 경기를 편성했다.[58] 당시 중계방송은 방영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의 방송 신호를 받아 무단으로 중계한 것이다. 이후,

57) 남북 방송교류 기본합의서(안) 제10조(외국 영상물 방영권 공동활용)에 따르면 1. 협정 당사자 지역의 방송사는 외국 영상물 방영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지역 방영권을 포함해 구입하도록 장려한다. 2. 협정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 지역에 대한 영상물 방영권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 3. 영상물 방영권을 취재·제작 지원 경비로 지불할 수 있다.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 31.

58) "<북한 톺아보기> 북 TV 월드컵 중계," 『연합뉴스』, 2010년 6월 14일; https://www.yna.co.kr/view/MYH20100614006200038(검색일: 2023년 10월 18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동아시아축구대회 등의 국제 경기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남한의 방송위원회가 중계를 지원하였다. 중계권료 이외에도 중계와 관련한 추가 비용,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였다. 당시에는 남북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조선중앙TV는 북한 선수들의 주요 경기를 포함해 남한 선수들의 주요 경기도 방송하였다.

북한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공식적으로 중계권을 받아 방송하게 되었다. 남한의 방송위원회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독일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북한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대한축구협회가 FIFA의 양해를 얻어 북한지역의 중계권을 확보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계를 하게 되었다. 북한이 지불하기에 FIFA의 중계권료는 높았으나, 북한이 사회주의국가로 방송 광고 수입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남한은 중계권료를 가지고 있는 인프론트사를 설득하여, 북한이 방송 송출에 필요한 위성 임대료 등 최소한의 기술적 비용만 부담하고 남측이 제공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59]

외국영상물 공동활용 교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한반도 중계권을 단독으로 보유한 SBS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천안함 등의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였고 합의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중앙TV가 월드컵을 중계한 것을 두고 SBS는 북한이 무단으로 월드컵을 중계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가 대회 직전에 FIFA와 북한의 중계권에 대한 계약을 마쳤으며, 북한이 FIFA로부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급받은 화면을 사용해 왔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하였다.[60] 남북의 경색된 관계가 외국영상물 교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이다.

---

59) “방송위, 북한에 월드컵 경기 중계 지원 합의,” 『KBS』, 2006년 6월 12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167729(검색일: 2024년 3월 24일)

60) ““북한 월드컵 중계 해적방송 아니다”,″ 『미디어오늘』, 2010년 6월 15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85(검색일: 2023년 10월 18일).

국제 경기의 중계권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남한은 중계권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하였다. 당시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의 회장인 김인규 KBS사장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차원에서 IOC와 협의해 ABU가 가지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올림픽 방송권을 북한에 부여하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6년 리우데자이루 올림픽까지 북한에 합법적인 중계권이 부여되었다.[61] 이는 남북의 방송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해외 기구를 통해 남북의 방송교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외국영상물 공동활용 교류는 지속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남한의 중계권료를 확보하는 중계업체가 북한 지역의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국제 경기의 중계권료가 높아지자 방송사가 아닌 중계업체가 중계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계약상 중계권의 범위가 대한민국으로 한정됐다. 그래서 북한은 중계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북한은 북한 선수들의 주요 경기도 중계할 수 없어 단신 뉴스로 보도하는 형태에 그쳤다.[62] 최근의 남한 방송사들도 국제 경기의 중계권료가 높아져 중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남북 간 방송 중계 교류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기현 등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해외 영상물의 방영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북한의 방송이 개방되어 남한의 방송사들이 북한지역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할 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가 개방될 경우, 북한도 해외 영상물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방송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 남한 방송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도 높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63] 그러나 앞으로의 관계 개선의 문제를 떠나 외부 세계

61)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p. 14.

62) "[아시안게임] 스포츠대회 5년만 복귀인데…중계방송 없는 북한," 『연합뉴스』, 2023년 9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124900504(검색일: 2023년 10월 18일).

63)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p. 42-43.

의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북한의 방송 환경에서 국제 경기를 꾸준히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직접적 교류 유형

1. 주요 행사 중계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면서 남북의 방송교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스포츠,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의 주요 행사 중계도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방송교류는 저널리즘을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으므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의 정치적 행사를 중계한 것은 제외하고 스포츠,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행사 중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 분야의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주요 행사의 중계 횟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남북은 1999년부터 '남북 통일농구대회', '남북 통일탁구경기대회', '남북 통일축구경기' 등의 여러 스포츠 경기를 중계했다. 1999년 MBC와 SBS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위성을 통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 통일농구대회'를 생중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남북 통일농구대회' 2차 대회가 SBS를 통해 중계되었다. 처음에는 SBS가 촬영한 중계화면을 국제위성 '인텔셋'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고 이를 생중계하기로 논의 되었으나[64], 북한은 12월 23일에 열린 경기를 25일에 녹화 중계하고 SBS가 위성을 통해 보내준 경기 장면과 관중들의 함성을 그대로 살린 채 북한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실황중계 음성을 동시에 내보냈다.[65] 다음 해인 2000년에는 평양에서 '남북 통일탁구대회'가

64) "[농구/남북통일대회]SBS화면 제공받아 北 위성생중계," 『동아일보』, 2009년 9월 23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19991222/7494700/9(검색일: 2023년 10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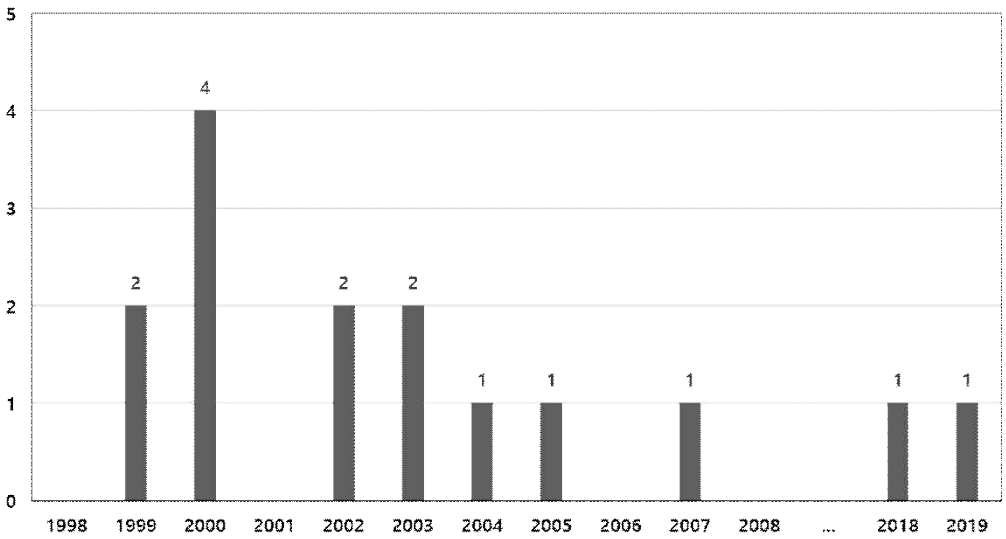
65) "[북한] 통일농구대회 녹화 중계방송," 『조선일보』, 1999년 12월 26일;

열렸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에서 동시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하였다.

주요 행사 중계는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고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이지만, 남북의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남북 주민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 공동의 주요 행사 중계를 통해 주민들 간의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이념성이 드러나지 않고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실감하기 어려운 분야로 다른 방송교류에 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한반도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행사 중계는 교류의 깊이는 낮지만, 북한의 거부감이 적은 교류의 형태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림 3-2】 연도별 남북한의 주요 행사 중계 횟수

(단위: 건, 총 15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9/12/26/1999122670076.html(검색일: 2023년 10월 16일).

【표 3-3】 남북한의 주요 행사 중계 사례

방송일		방송사	분야	프로그램 제목
1999	1999.09.28.-29	M,S	스포츠	남북통일 농구대회 중계 1차대회
	1999.12.23-24	SBS	스포츠	남북통일 농구대회 중계 2차대회
2000	2000.06.11	MBC	문화예술	[남북정상회담 기념 특집] 평양교예단 초청공연
	2000.07.28	MBC	스포츠	통일탁구 경기대회
	2000.08.15	MBC	스포츠	금강산을 달린다 평창 -금강산 랠리
	2000.08.22.-23	KBS	음악쇼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2002	2002.08.15.-16	SBS	음악쇼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 예술단 공연
	2002.09.07	KBS	스포츠	남북통일 축구경기
2003	2003.04.10	KBS	행사	[특별기획] 평화, 번영, 통일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2003.10.06-07	SBS	스포츠	정주영류경체육관개관기념 남북통일농구
2004	2004.06.15	MBC	음악쇼	[특집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우리 민족자랑 남북 예술공연
2005	2005.08.14-16	MBC	스포츠	통일 축구 남녀경기
2007	2007.10.25	SBS	스포츠	금강산 에머슨 퍼시픽 오픈 골프대회
2018	2018.07.10.-12	K,M,S	스포츠	남북통일 농구대회
2019	2019.01.28	MBC	스포츠	2019 남북축구 친선교류전, 강원FC:4.25종합팀

2. 취재·제작 지원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97년까지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위해 방송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1997년에 KBS에서 제작한 '일요스페셜 - 북한에서 본 백두산'은 북한에서 촬영한 백두산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있으나 남한의 방송사가 방북해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 KBS

는 중국을 통해 백두산 영상을 의뢰하고, 중국이 다시 북한의 용남녹화 편집사에게 촬영을 요청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66] KBS가 기획한 내용에 맞추어 촬영이 진행되었지만 남북한의 직접적인 방송교류라고 보기를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방송사가 촬영물을 입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고, 제3국을 통해 입수한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의 북한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형태로 제작을 시도하다가, 남북이 교류를 시작하면서 점차 남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안정적인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취재 및 촬영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67], 민족경제협력연합회[68] 등의 협조를 받고, 남한의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및 방북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취재 및 촬영이 진행되었다. 1998년에는 독립프로덕션인 스포츠아트가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최초로 남북한의 공식 승인을 얻어 방북해 '김승규의 평양리포트'를 제작했다. 1999년에는 SBS가 남한 방송사 최초로 남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취재, 제작한 최초의 프로그램 '조경철박사의 52년만의 귀향'이 제작되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취재·제작 지원 교류는 남북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대한 북한 측의 통제가 심했으며, 필름과 테이프 등에 대한 북한의 검열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남한 방송사가 제작한 제작물의 필름을 압수해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69] 북한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기획이나 소재, 촬영

66) "KBS'북한에서본 백두산'첫공개," 『매일경제』, 1997년 9월 12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788323(검색일: 2023년 10월 16일).

67)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북한의 정당,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하여 조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접촉 창구 및 대남사업을 담당한다. 2005년부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2007년부터 남북역사학자협회와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갑식 외, 『북한지식사전』, pp. 299-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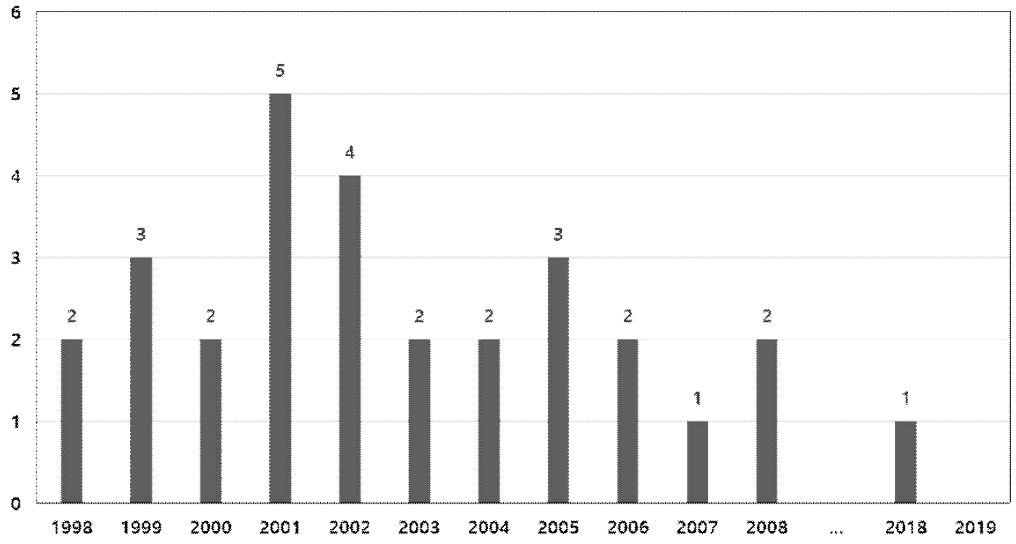
68)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을 산하에 두고 대남 민간경협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2005년 10월부터는 남북합의에 따라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 개성현지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김갑식 외, 『북한지식사전』, pp. 290-291.

장면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재가 자연, 문화, 역사 등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고, 남한의 방송사가 모두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그림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취재·제작 지원 교류는 남과 북에서 높은 빈도로 진행된 방송교류의 유형이지만 남과 북의 협업을 위한 접점은 적고, 방송 분야에서의 다면적인 확장성도 적은 교류의 형태이다. 취재·제작 지원 방식은 양측의 협조만 있었을 뿐 과학기술 및 방송 기술의 전수, 인적 교육의 교류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류 과정에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으나 취재, 제작 지원의 형태에서 점차 발전하여 공동제작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생겨났다. 또 공동제작에 비해 필요 인원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까지도 매년 3~4개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작되어 북한의 모습을 남한의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연도별 남북한의 취재·제작 지원 횟수

(단위: 건, 총 29건)



69)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 48.

【표 3-4】 남북한의 취재·제작 지원 사례

방송일		방송사	분야	프로그램 제목
1998	1998.08.10-14	SBS	다큐멘터리	김승규의 평양리포트(5회)
	1998.08.24	SBS	다큐멘터리	김혜자의 5일간의 북한체험
1999	1999.12.07	SBS	다큐멘터리	조경철 박사의 52년만의 귀향
	1999.12.22	MBC	다큐멘터리	[특집생방송]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1999.12.23	SBS	다큐멘터리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평양에서의 7일
2000	2000.06.09-10	KBS	다큐멘터리	북한특별기획 1부-현장보고 북한의 여성, 2부-최초공개 김일성종합대학
	2000.08.14	MBC	다큐멘터리	현미 남보원이 본 평양
2001	2001.02.16	MBC	다큐멘터리	[MBC스페셜] 춘향, 평양에 가다
	2001.04.15	MBC	시사보도	여기자 평양리포트 -평양 10박11일
	2001.06.13-14	KBS	시사보도	[보도특집]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빗장 연다', '대동강 밸리의 꿈'
	2001.08.14	KBS	다큐멘터리	[자연다큐멘터리] 백두고원을 가다
	2001.10.06.-27/ 2001.12.08.-29	KBS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북한 문화유산 시리즈 8부작
2002	2002.03.02-03	KBS	드라마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
	2002.10.03	KBS	다큐멘터리	[특집] 하나됨을 위하여 - 평양에서의 7일
	2002.11.09	KBS	다큐멘터리	남북최초공동답사 세계문화유산 '한반도의 고인돌'
	2002.12.03	MBC	시사보도	현지보고, 통일 염소의 대장정 -남북농업교류, 1년의 기록
2003	2003.10.26	MBC	다큐멘터리	다큐 <까레이스키 아리랑>
	2003.10.18	KBS	시사보도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
2004	2004.06.24	MBC	다큐멘터리	살아오는 고구려
	2004.07.10-11	KBS	다큐멘터리	[KBS스페셜] 고구려의 부활
2005	2005.02.15	MBC	시사보도	[PD수첩] 개성을 가다
	2005.08.26	MBC	다큐멘터리	백두산에 바치는 시,남북작가대회
	2005.09.10	SBS	다큐멘터리	조용필, 평양에서 부르는 꿈의 아리

				랑
2006	2006.04.04	MBC	다큐멘터리	북한 고려의학의 베일을 벗긴다
	2006.05.05	MBC	음악쇼	금강산 창작동요제
2007	2007.07.10	SBS	다큐멘터리	신영복 교수의 금강산 사색
2008	2008.05.19-30	MBC	생활정보	<우리말나들이> 개성 촬영
	2008.06.04	MBC	다큐멘터리	[MBC스페셜] 고려왕궁 만월대
2018	2018.02.09	K,M,S	음악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

3. 공동제작

남북의 방송교류는 주로 방송영상물 교류, 주요 행사 중계, 취재·제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공동제작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공동제작을 통해 방송교류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술 교류, 인적 교류 등으로 확장되었다. 90년대 말에 진행된 방송교류가 숨겨져 있던 북한의 모습을 담아내는 형태에 집중되었다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이 제작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기획하는 등 점차 상호주의 기반의 교류 활동으로 변화하였다.[70] 남북의 제작진이 함께 참여한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이 백두산에서 제작되었고, 남한의 대중 가수가 평양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며, 제작에 긴 시간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제작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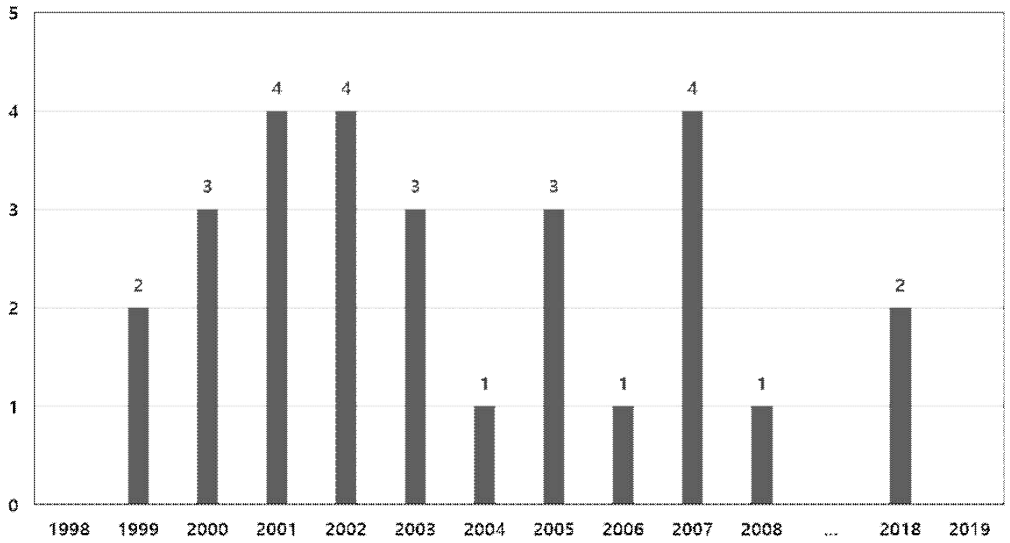
공동제작은 1999년 2건, 2000년 3건, 2001년 4건, 2002년 4건, 2003년 3건, 2004년 1건, 2005년 3건, 2006년 1건, 2007년 4건, 2008년 1건이 진행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년 3건 이상의 공동제작이 진행되다가 2003년 북핵문제 이후로 점차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4건이 진행되었는데, 사육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은 2007년 이전에 논의되었던 건으로 북핵문제로 방

70)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p.13.

송이 지연된 측면도 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한의 공동제작은 【그림 3-4】와 같이 정치 상황에 따라 횟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교류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동제작을 통해 과학기술, 방송 제작 기술의 전수가 이루어졌으며, 인적 교류도 진행되었다. 공동제작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공동제작의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4】 연도별 남북한의 공동제작 횟수

(단위: 건, 총 28건)



【표 3-5】 남북한의 공동제작 사례

방송일		방송사	분야	프로그램 제목
1999	**1999.12.10**	SBS	음악쇼	평화친선 음악회
	1999.12.20	MBC	음악쇼	[특집위성중계방송]민족통일음악회
2000	**2000.08.15-17**	KBS	생활정도	북녘땅, 고향은 지금(3부작)
	2000.09.12	KBS	뉴스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2000.10.09.-14	SBS	뉴스	[SBS특별기획] 생방송 평양 2000
2001	**2001.06.01-29**	KBS	생활정보	2001 특별기획 <6시 내고향> 여기는 평양입니다.
	2001.06.10	KBS	다큐멘터리	KBS일요스페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2001.06.15	KBS	뉴스	KBS뉴스9
	2001.06.15	SBS	뉴스	8시뉴스
2002	**2002.09.11-13**	MBC	뉴스	서울-평양 뉴스데스크 이원생방송
	2002.09.17-21	KBS	뉴스	[특별취재] 9시뉴스
	2002.09.21	KBS	음악쇼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2002.09.27.-10.04	MBC	음악쇼	MBC특별공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2003	**2003.08.15**	KBS	음악쇼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2003.10.06-07	SBS	음악쇼	정주영류경체육관개관기념 통일음악회
	2003.11.27.-	EBS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2004	**2004.01.31-02.01**	MBC	다큐멘터리	[MBC스페셜] 북녘 전통음식 기행 1, 2부
2005	**2005.03.15**	MBC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가다
	2005.06.12	KBS	음악쇼	[특집] 금강산 열린음악회
	2005.08.23	SBS	음악쇼	조용필 정주영류경체육관 단독공연
2006	**2006.09.05**	MBC	다큐멘터리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
2007	**2007.02.04**	MBC	다큐멘터리	[MBC스페셜] 남북공동제작 자라의 생존법칙
	2007.04.29	MBC	다큐멘터리	[MBC스페셜] 남북공동제작 개마고원의 불개미
	2007.08.08-11.01	KBS	드라마	24부작 드라마 <사육신>
	2007.10.08-11.16	SBS	어린이	3D애니메이션 상상아놀자
2008	**2008.02.26**	MBC	음악쇼	뉴욕필하모닉 평양공연
2018	**2018.04.05, 04.25**	MBC	음악쇼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
	2018.08.14-15	KBS	뉴스	KBS 뉴스9 서울-평양 이원 생방송

가. 생방송 뉴스

6.15 정상회담 이후 방송 3사는 북한지역에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였다. KBS의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 -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남과 북이 처음으로 공동 제작한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남과 북의 방송 인력이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였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BS 제작진 21명과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제작진 18명이 투입된 이 방송은 백두산과 서울을 위성으로 연결하고 다시 서울과 한라산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3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평양중앙TV의 기자, 사회과학원 연구소 부소장, 백두산 천지전문가 등 북한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백두산에 대한 상세히 해설하였다. 이 방송은 2000년 9월 10일과 11일, 12일 9시 뉴스를 송출한 데에 이어, 12일 낮 12시부터는 장장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하였다.[71] 비슷한 시기에 SBS도 평양에서 29명의 제작진을 파견하여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 이후에도 방송사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념행사, 북일평양선언 등 평양에서 열리는 주요 정치 행사와 연계하여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생방송 뉴스를 제작하였다.

나. 음악쇼

공동제작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음악쇼 분야이다. 첫 음악쇼 프로그램은 1999년 SBS의 '평화친선 음악회'였다. 미국의 로저클린턴이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개최할 때 SBS가 합동 공연의 형태로 참여했다. 미국의 로저클린턴과 북한예술단, 남한의 패티김, 최진희, 태진아, 설운도, 핑클,

71)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pp. 36-46.

젝스키스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중앙TV가 녹화한 화면을 SBS가 편집해 남한에서 방송하였다. MBC는 1999년도에 방송사 최초로 평양 단독공연을 개최하였다. '민족통일음악회'는 남한의 차인태 아나운서와 만수대예술단 백승란이 공동으로 진행을 맡았다. 두 프로그램 모두 북한에서 촬영되었으나 북한에서는 방송되지 못하고 남한에서만 방송되었다. 평양의 공연장 현장에서 관람한 관람객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이 공연을 접할 수 없었다.

2002년에는 2000년에 남한에 진행된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답방 형태로 북한의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이 진행되었다. 이 공연은 남북한에서 동시에 생중계되었다. 곧이어 MBC가 추진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는 남한 대중가수 공연으로는 최초로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윤도현밴드, 최진희 등 남한의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공연이 북한에서도 생중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전까지는 스포츠, 클래식 장르의 행사만 북한에서 방송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평양노래자랑'을 제외하고는 대중 공연이 북한에서 방송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다음 해인 2003년에는 KBS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이 제작되었다. 평양 주민들이 참여하고 남한의 송해와 북한의 전성희가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한반도 전역에 녹화 방송되었다.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북한 전역에 3차례나 방송되었다고 한다. 남한 가수의 노래와 정서, 북한 가수의 노래와 정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성공적인 교류사업의 사례로 평가받는다.[72] 이후에도 공연 프로그램은 SBS의 '통일음악회', '조용필 단독공연', MBC의 '뉴욕필하모닉 평양공연' 등이 제작되었다.

음악쇼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북한 측이 가사 또는 노래 제목에 문제를 제기해 일부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음악은 정치적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분야로 남북의 방송교류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북한에 동시에 생

72)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p. 9.

중계되기도 하고 녹화되어 방송되기도 하는 등 북한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교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음악쇼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기획, 제작이 가능하고, 다큐멘터리에 비해서 시청률도 높은 분야로 공동제작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분야이다. 공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많은 인원이 제작에 필요했기 때문에 남북의 인력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남북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평양에서 '봄이 온다' 공연이 진행되었으나 이 공연은 북한에서는 방송되지 않았다. 당시의 호의적인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만에 북한에서 열린 대중 공연이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며, 10년 사이에 북한 내에서 확산된 남한 음악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에 북한당국이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봄이 온다'는 레드벨벳의 '빨간맛' 등의 음악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장에 직접 참석했다는 내용으로도 주목받았다. MBC가 방송 3사를 대표해 평양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남한의 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1사가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상파 3사 통합 시청률 36.6%를 넘었다.[73] 높은 시청률로 당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음악쇼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주요 정치 행사의 부대행사처럼 인식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은 문화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클래식이나 전통 음악이 주로 활용되었고, 북한 내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통제하에 제한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73) "평양 공연 '봄이 온다', 지상파 3사 통합 시청률 36.6%…1위는 KBS," 『YTN』, 2018년 4월 6일; https://star.ytn.co.kr/_sn/0117_201804060926415423 (검색일: 2024년 1월 26일).

다. 다큐멘터리

음악쇼 프로그램 다음으로 제작 빈도가 높은 공동제작 분야는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는 비교적 적은 인원의 방북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방송교류 초기부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이기도 하다. 제작방식도 다양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남한의 방송사가 기획한 내용을 북한에 전달하고 기획 내용에 따라 북측이 영상을 촬영해 남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제작되었다.

MBC의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그림 3-5】, 【표 3-6】과 같이 프로그램의 텔럽에는 북한의 촬영 스태프, 리포터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자라의 생존법칙', '개마고원의 불개미'는 MBC가 기획, 구성, 편집하고,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촬영한 프로그램이다.

남한의 기획과 구성에 따라 제작하지만, 북한이 촬영물을 검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방송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주요 소재가 역사, 자연 등의 내용이 많아서 남한 시청자들에게도 소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교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3-5】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 프로그램 텔럽 캡처 화면



【표 3-6】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 프로그램 텔럽의 북한측 참여자

'최초공개 금강산의 여름 – 내금강에서 해금강까지' 프로그램 텔럽의 북한측 참여자
북한현지진행(심양고려민족문화연구원/김선희)
북한촬영조감독(리상철)
북한촬영감독(김명진)
북한안내원(강성심/심옥금)
북한리포터(오현희)
북한인터뷰어(신천석/만호/김일교)
북한촬영협조(평양중앙방송/평양록화편집사)

라.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의 분야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애니메이션 교류이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문화적 교류를 넘어 경제적 협력도 이루어 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8월에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애니메이션 합작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의 논의가 진행되어 2001년에는 웹에서 서비스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딩가'가 제작되었다. 2002년에는 두 번째 남북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EBS)'가 제작,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하나로 텔레콤이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을 맡고, 4.26아동영화촬영소가 메인 프로덕션을 담당해 총 22편을 제작했다. '뽀롱뽀롱 뽀로로'의 성공에 힘입어 2006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을 통해 삼천리총회사와 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사업 영역으로 확장해 갔으며 '상상아 놀자(SBS)'를 공동제작 하였다.[74] 애니메이션의 방송교류를 횟수는 많지

74) 김영재, "북한 개혁·개방 시대의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 전략," 『애니메이션연구』, 제14권 제4호(2018), pp. 12-13.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애니메이션은 남북의 방송교류를 경제교류와 연결해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애니메이션 교류의 경제적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단기적인 수익성에 과도하게 주목한 측면도 있다. 남북의 정치 상황이라는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결국 하청제작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해 남북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75] 한편 남북의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협력주체 이외에 국제 사회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켰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76] 남과 북의 애니메이션 협력에 국제 사회가 참여했다면, 방송 교류가 가진 특성인 남북 양측의 정치적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 드라마

드라마 공동제작 사례는 드라마 '사육신(KBS)'이 유일하다. 드라마 '사육신'에 대한 남북한의 첫 논의는 2002년에 시작되었다.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KBS와 접촉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사극 제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되었다. 당시 KBS는 드라마의 내용에 사상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충과 효를 다루고 있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동제작을 결정하였다. KBS가 총괄 프로듀싱을 하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TV극창작단이 제작하였다.[77] 2005년 남북의 드라마 작가들이 모여 공동 집필을 시작하고 최종 대본이 완성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2005년 7월에 촬영이 시작되어 2007년 5월이 되어서야 촬영 완성본을 KBS에 납품하였다. 당초 제작 기간을 14개월로 예상했으나, 최초의

75) 위의 논문, pp. 13-14.

76) 이승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이슈와 논점』, 제1487호(2018), p. 3.

77)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pp. 26-27.

논의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78] 제작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애니메이션 교류와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 절차가 복잡하고 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방송시스템과 제작 관행의 차이, 동시 녹음 능력, 조명 기자재 부족, 화질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디지털 제작을 위한 장비를 현물로 지원하고, 디지털 제작 및 후시녹음 등의 디지털 제작 기술을 전수하는 성과도 있었다. 드라마는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이다. 드라마 '사육신'이 완성된 형태의 공동제작은 아니지만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8) 위의 논문, pp. 29-30.

제4장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 분석

제1절 공동제작 사례 평가

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2002년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가 진행되기 직전의 상황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서해 교전'으로 인해 남북의 관계가 경색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때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한이 주최하는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남한 정부는 부산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의 평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음악쇼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79] 음악쇼 장르는 다른 방송교류 유형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기획과 제작이 가능한 분야로 이미 몇 차례의 공동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다.

남한의 방송사 MBC와 북한 조선중앙TV의 제작진 80여 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하였다.[80] 공연에 필요한 음향 장비, 조명은 MBC가 준비하고, 조선중앙TV는 공간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였다. 조선중앙TV의 중계차를 이용하였으며, 중계차와 연결된 카메라 8대, M/W, 위성 등의 기술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MBC가 연출 의도에 맞춰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안하면 조선중앙TV에서 요구사항에 맞추어 운용하는 합동 중계 방식을 적용하였다.[81]

---

79)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pp. 42-43.
80) 위의 논문, p. 40.

과학기술, 방송 제작 기술을 공유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은 아니지만, 장소 및 방송 장비를 대여하고, 남북의 출연자가 함께 참여하는 등 낮은 단계의 공동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차 공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2002년 9월 27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남한에서는 생중계되었고, 북한에서는 하루 뒤인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녹화 방송되었다. 2차 공연 '오! 통일코리아'는 2002년 9월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북한에서 생중계되었고, 남한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 일정으로 인하여 10월 4일에 녹화 방송되었다. '오! 통일코리아'는 남한 대중가수의 공연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생방송 된 첫 사례이다. 당시 평양 공연에 참여했던 제작진은 문화성 관리에게 '시청률이 90%쯤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82] 남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계된 시청률은 아니지만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북한의 상황에서 남한의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시 북한에서는 생방송 자체가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남한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로 파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16.3%, '오! 통일코리아'는 15.3%[83]의 시청률을 기록해 남과 북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방송교류의 소재로 대중음악을 활용하였다. 북한은 방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출연 가수와 곡명, 가사를 받아 검열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하였는데, 당시 2002년 월드컵으로 남한에서 인기가 있었던 윤도현 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는 '필승'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 통일 코리아'로 곡명과 가사를 바꾸어 부르도록 요청하였다. 북한의 검열을

81) MBC통일방송추진단, 『북한 취재·제작의 실제』, pp. 93-94.

82) 문화방송, 『오! 통일 코리아(2002MBC평양 특별공연/MBC뉴스-여기는평양)』, (서울: 문화방송, 2002), p. 42.

83) "윤도현밴드 평양공연 시청률 15.3%," 『한국경제』, 2006년 4월 2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2100529288(검색일: 2024년 3월 30일).

거쳐 음악이라는 비정치적인 소재로 제한되었으나, 남한의 대중 예술을 북한에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의 추진 대가로 남한 방송사 MBC는 북한에 미화 12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60만 달러의 현금과 컬러TV 5천 대가 현물로 지급되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물이 지원되었으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거나 산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단편적 일회성 교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음악쇼 형태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된 특별공연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음악쇼 프로그램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교류의 형태였으며, 남한 정부는 음악쇼의 특성을 활용하여 경색된 남북의 관계를 평화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데 활용하였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단편적 일회성 교류였으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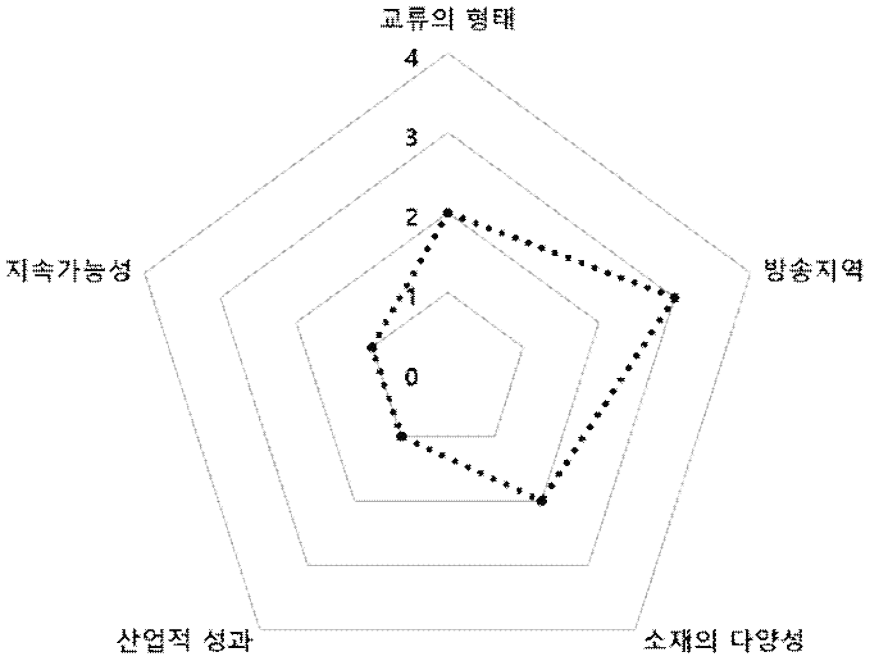
【표 4-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사례 평가

평가 기준	평가 점수
1. 교류의 형태	2점. 낮은 단계의 공동제작
2. 방송(송출) 지역	3점. 남과 북 모두에서 방송함
3. 소재의 다양성	2점. 검열, 통제된 비정치적 소개
4. 산업적 성과	1점.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지원
5. 지속가능성	1점. 단편적 일회성 교류

【표 4-1】의 항목별 배점을 레이더 차트로 도식화하면【그림 4-1】과 같

다. 도식화한 레이더 차트를 살펴보면,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 프로그램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 프로그램은 산업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은 낮지만, 남북한 양측에 모두 방송되어 방송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남북의 정치적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여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의
사례 평가 레이더 차트



2. 드라마 '사육신'

드라마 '사육신'은 KBS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TV극창작단이 제작을 담당한 남북 최초의 공동제작 드라마이다. 드라마 '사육신'은 2002년 9월 초에 처음으로 공동제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드라마 '사육신'의 공동제작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8건의 방송교류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공동제작은 9건이 진행되었다. 남과 북 사이에서 진행된 방송영상물 교류,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음악쇼 공동제작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교류 형태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또한, 많은 제작비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드라마 공동제작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은 2002년 이전에 지속된 교류를 통해서 남과 북의 신뢰와 이해가 쌓였기 때문이다. 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드라마 '사육신'의 공동제작이 추진되었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사육신'은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02년 9월부터 드라마 24편이 방송 완료된 2007년 11월까지 5년여에 걸쳐 교류가 진행되었다.

드라마 '사육신'은 장소 및 방송 장비 대여, 출연자의 참여를 포함해 KBS의 방송 제작 기술이 북한에 전수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방송 작가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공동 집필, 공동 수정의 과정을 거쳐 대본을 완성하였다. 최종 대본을 완성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본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다.[84] 또한, KBS의 방송 기술이 북한에 전수되어 북한 최초로 디지털 제작 방식과 동시녹음 방식을 적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대본에서 촬영, 제작, 편집까지 북한의 제작진과 남한의 제작진이 협의의 과정을 거쳐 드라마를 완성하였다. 과학기술, 방송 제작 기술을 공유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드라마 '사육신'의 저작권은 KBS가 소유하고 북측에 북한 지역에 방영권을

84)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p. 29.

허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방영하지 않았다. 북한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드라마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방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드라마가 방영된 2007년은 2003년 이후 본격화된 북핵문제로 남북 간, 북미 간 정치 변수가 많았던 시기이다. 북한 정권은 이 시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공동제작을 논의할 당시, 남한의 제작진은 북한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왕궁사를 담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이 정치 선전도구로 여겨온 드라마에서 사상성을 배제하는 것이 북한 영상 예술의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85]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육신'의 충정과 절개를 드라마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숨겨진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북한의 조선방송중앙위원회는 사육신의 기획의도를 '죽음을 초월하는 충의 절개는 참된 인간의 의리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86] 역사라는 비정치적인 소재이지만 북한 정권이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려 한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드라마 '사육신'은 검열, 통제된 비정치적인 소재가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한은 드라마 '사육신'의 사업비로 북한에 현물 140달러, 현금 70만 달러, 총 21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KBS는 드라마 '사육신'의 품질 제고를 위해 디지털 관련 장비와 제작 기술 교육을 북한에 제공했다. 2005년 7월에는 1차로 동시녹음 장비와 오디오 믹서가 제공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2차로 디지털 카메라, 발전차, 조명 장비가 지원되었다. 이어 2006년 6월에는 3차로 디지털 오디오 편집기, VCR, 모니터가 지원되었고, 2007년 6월에는 4차로 디지털 오

85) 위의 논문, p. 28.

86) "당시 사육신의 행적을 유교도학적인 관점에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불사이군의 충군사상에 기초한 충의절개로 평가하였다면 이번에는 텔레비죤력사극 창작을 통하여 그들의 충정과 절개를 현대성의 견지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충의 절개는 참된 인간의 기본성정인 변할 줄 모르는 의리심에서 발산한다는 것을 보려주려고 한다 (북한<사육신> 기획의도 원본". 위의 논문, p. 20.

디오 편집기, 디지털 카메라, 버스 등이 지원되었다. 드라마 '사육신' 제작을 위한 디지털 방송 장비의 지원은 북한의 방송 제작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남북한 방송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드라마 '사육신'은 5년여에 걸쳐 총 24편이 제작되었으며, 대본에서 촬영, 제작, 편집까지 드라마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남과 북의 협업이 진행되었다. 단편적인 일회성 교류가 아닌 연속성 있는 교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 당시에 구축한 방송 제작 인프라와 방송교류의 노하우를 쌓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남북한 방송교류에 참여하고, 방송교류의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에서 열거한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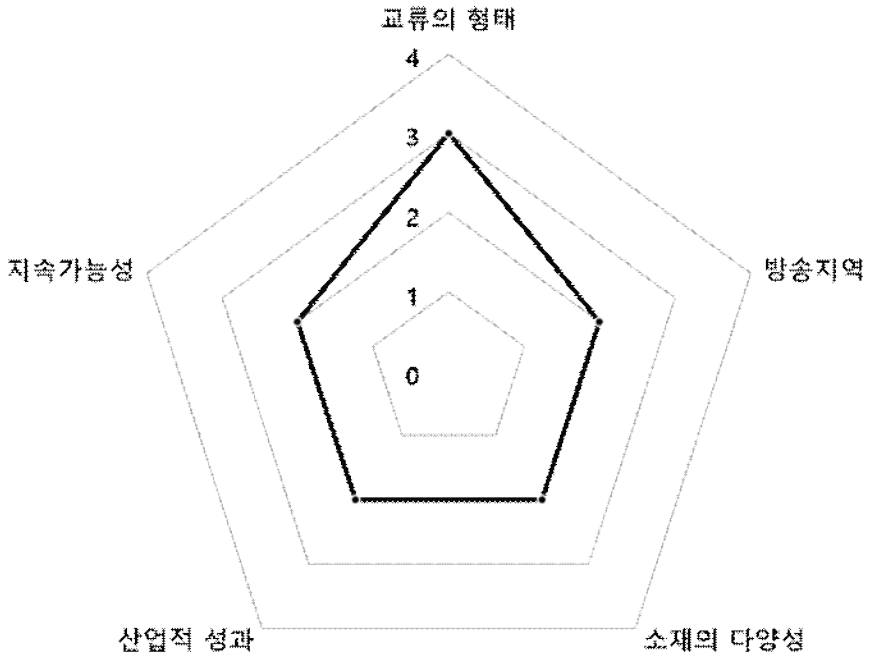
【표 4-2】 드라마 '사육신' 사례 평가

평가 기준	평가 점수
1. 교류의 형태	3점.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
2. 방송(송출) 지역	2점. 남과 북 한쪽에서만 방송함
3. 소재의 다양성	2점. 검열, 통제된 비정치적 소개
4. 산업적 성과	2점. 방송 인프라 구축
5. 지속가능성	2점. 연속성 있는 교류

【표 4-2】의 항목별 배점을 레이더 차트로 도식화하면 【그림 4-2】과 같다. 드라마 '사육신'은 교류의 형태 측면에서 성과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 '사육신'은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구체화, 체계화되고 있던 시기에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형태의 방송교류가 지속되었다면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권리를 나누는 완성된 형태의 공동제작 방식으로 진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류의 형태가 진보하면서 남북한 방송교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적 성과를 얻고 지속가능한 교류의 체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드라마 '사육신'으로 쌓은 남북한 방송교류의 노하우가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중단되고 지속되지 못한 측면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림 4-2】 드라마 '사육신'의 사례 평가 레이더 차트



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한의 하나로텔레콤과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공동제작한 프로그램[87]이다. 당시 애니메이션의 제작 환경은 이미 산업화

87)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에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였다. 기획과 마케팅은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제작은 주식회사 오콘과 삼천리총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북한에서 진행된 작업은 삼천리총회사의 책임 아래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캐릭터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정·이상구, 『1999-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4), pp. 18-19.

가 진행된 단계로 방송사의 역할보다는 제작사의 역량이 중요하였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공동제작은 하나로텔레콤과 삼천리총회사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제작 단계부터 산업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교류가 진행되었다. 남한이 기획의 전반을 담당하고 북한은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을 담당하였다. 드라마 '사육신'과 유사한 형태이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서는 특히 인력에 대한 교육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남북한의 기술 격차가 컸기 때문에 공동제작을 위해서는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으며, 북한은 3D 기술 교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88]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방송 제작 기술을 공유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딩가'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상영되지는 못하였으나, 북한 지역 상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소재의 측면에서 남과 북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가 북한에서 정식으로 방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과 2016년에 뽀로로 캐릭터 상품이 조선중앙TV에서 노출된 적이 있어서 북한의 어린이들도 '뽀롱뽀롱 뽀로로'를 시청하였는가에 대해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나[89] 정식으로 TV를 통해서 방송되지는 않았다.

북한의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소재는 남한과 비슷한 보편적인 내용으로 학습과 권선징악, 충효, 지혜와 용기 등을 다룬다.[90] 북한도 아동 애니메이션에는 정치나 이념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는다. 북한은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주의교

---

88) 조민,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와 개성공단 활용," pp. 222-223.

89) "남북 합작으로 대박난 '뽀로로'... 북한 아이들도 볼까?," 『동아일보』, 2018년 5월 16일;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80516/90107149/1(검색일: 2024년 3월 30일).

90) 이용배, "북한 애니메이션의 현황과 남북교류 가능성에 대한 고찰,"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6호(2002), p. 232.

양은 실시하되, 정치적인 내용은 삼가라고 최고지도자가 강조하기도 하였다.[91]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소재와 내용은 북한의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비정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과 북 모두에서 산업적 성과를 거둔 남북한 방송교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대가로 외화를 벌 수 있었으며, 제작사인 하나로 텔레콤은 작품의 방영권 및 상품화 권리를 해외에 수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 당시에는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으며, 공동제작 방식을 도입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규모의 하청을 의뢰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상업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산업적 성과를 내는 것에 한계는 있었으나, 남북이 공동제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의 성과가 한반도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경제적 성과가 교류의 지속성을 만들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남한은 물론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북의 방송교류가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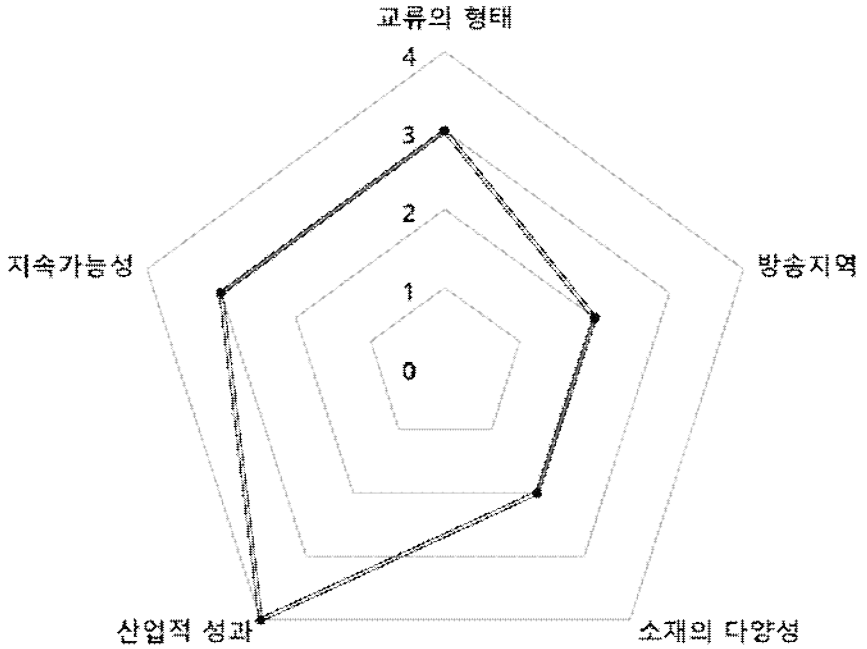
【표 4-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사례 평가

평가 기준	평가 점수
1. 교류의 형태	3점.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
2. 방송(송출) 지역	2점. 남한에서만 방송함
3. 소재의 다양성	2점. 검열, 통제된 비정치적 소개
4. 산업적 성과	4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5. 지속가능성	3점. 사업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교류

91) 조민,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와 개성공단 활용," pp. 221.

【표 4-3】의 항목별 배점을 레이더 차트로 도식화하면 【그림 4-3】과 같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산업적 성과, 교류의 형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한의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고, 평양에 남북한 공동의 센터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만들어냈다. 또한, 남과 북 모두에게 산업적 성과를 안겨주며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사례 평가 레이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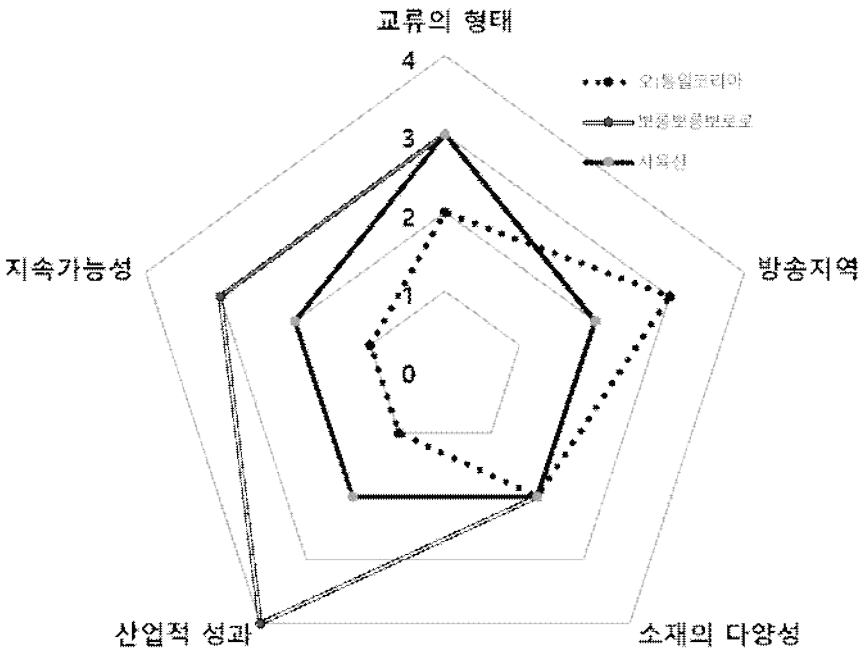


제2절 공동제작 사례 분석

연구자는 본 장의 제1절에서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교류의 형태', '방송(송출) 지역', '소재의 다양성',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다. 공동제작의 대표 사례인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 드라마 '사육신',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사례에 따라서 특성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산업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성과가 낮다고 평가되었으나, 방송(송출) 지역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드라마 '사육신'은 방송(송출) 지역, 소재의 다양성,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지표에 비해 교류의 형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방송(송출) 지역과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산업적 성과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 본 절은 제1절의 공동제작 사례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평가가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4】 남북한 방송교류의 사례 비교 레이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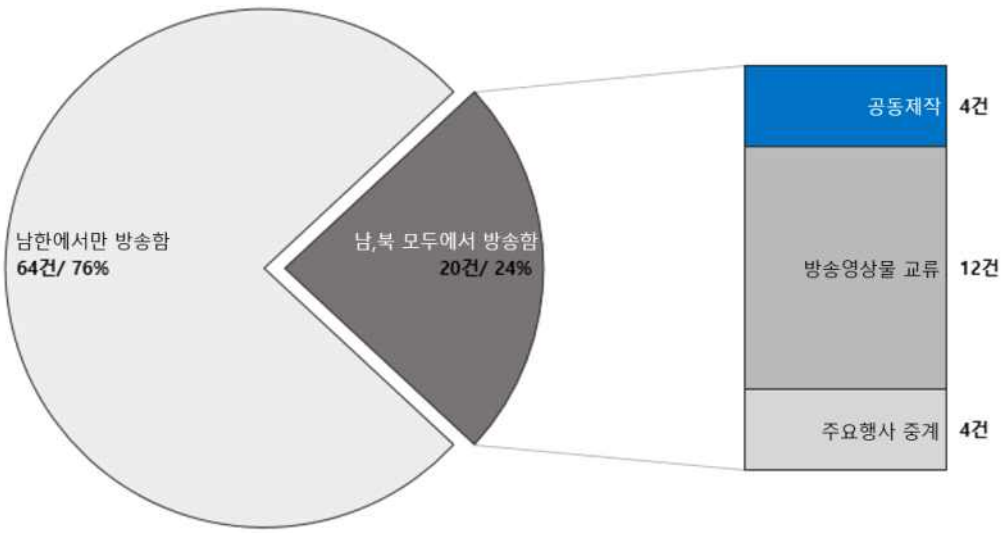


1.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오! 통일코리아'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가 가장 좋은 평가를 얻은 분야는 방송(송출) 지역에 대한 부분이다. 1차 공연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 공연 당일 남한에 생방송 되었고, 북한에서는 이튿날 저녁에 녹화 방송되었다. 2차 공연인 '오! 통일코리아'는 남한에서는 부산아시안경기대회 개막식 중계 관계로 녹화 방송되었고, 북한에서는 공연 당일에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북한 지역에서 송출된 최초의 남한 대중음악 프로그램인 동시에 생방송으로 편성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92]

【그림 4-5】 남북한 방송교류의 방송(송출) 지역

(단위: 건, 총 84건)



92)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p. 44.

대중공연을 포함해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남한의 방송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송출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남북한 방송교류는 북한에서 취재, 촬영되어 남한에서 방송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공동제작의 사례도 전체 28건 중 4개의 프로그램만이 남과 북에서 모두 방송되었다. 남한의 영상물을 북한에서 방송하고, 북한의 영상물을 남한에서 방송한 방송영상물 교류 사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남북한 방송교류 84건 중 76%가 북한 지역에서 촬영되어 남한 지역에서만 방송되었다. 방송교류의 결과물은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송출되지 못하였으며, 촬영 현장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에게는 노출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남한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생방송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하다.

남과 북이 같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송출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북한은 방송의 본질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보가 통제된 북한의 상황에서 방송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송교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93]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방송교류의 결과물이 남한에서만 방송된다면 방송교류의 성과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질성 회복과 이질성 극복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미친 대중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과 동서독 통일 이전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동서독 통일에서 방송교류가 영향을 미친 시사점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서독 방송교류의 주요한 시사점은 개방된 서독인들에게 동독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정보, 세계의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도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TV를 상시로 시청할 수 있었다. “낮에는 동독이지만 밤에는 독일”이라는 말이 있을

93)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p. 2.

정도로 대부분의 동독 주민이 서독방송을 시청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송 시청은 동서독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하고 통합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는다.[94] 이러한 점에서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남과 북에서 모두 송출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 분야, 특히 공연 예술 분야는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가능하며, 북한도 거부감 없이 교류에 나설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음악쇼 분야의 방송교류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시청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성과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음악쇼 형태가 그렇듯이 단편적인 일회성 교류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음악쇼는 연속성을 가지고 기획, 추진되기보다는 해당 시기의 이슈에 따라 일회성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았다. 음악쇼 장르는 주요 정치 행사의 앞 또는 뒤에 남북의 정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 부대행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오기현은 방송사의 방북 공연이 개별 방송사의 일회성 행사로 실행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관객의 반응과 북한 정부의 정책변화까지 유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95] 오기현의 논리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방송사들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산업적 성과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를 포함해 음악쇼 분야의 교류는 '남한의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94)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p. 9.
95)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pp. 95-100.

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사업비로 미화 120만 달러(현금 60만 달러와 컬러TV 5천 대)를 북한에 지급하였다. 당시 방송교류를 위한 사업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2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6]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KBS의 남북교향악단 공연은 45만 달러,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공동제작으로 1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였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남한이 방송교류를 위해 북한에 사업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는 다르게 최근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한의 방송사가 교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는 교류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작비용을 부담하면서 음악쇼 교류를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방송사들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협력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공연이 평양에서 열렸다. 이 공연은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행사 형식으로 정부의 공식 행사 일정에 따라 급박하게 추진되었다. 2019년 '봄이 온다'의 사례도 지속가능성, 산업적 성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얻기는 어렵지만, 음악쇼 분야의 교류가 반드시 지속가능성과 산업적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쇼는 남북의 정치적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여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면 된다. 음악쇼 분야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음악쇼 분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방송(송출) 지역을 확대하고,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96)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p. 11.

2. 드라마 ‘사육신’

드라마 ‘사육신’은 방송 제작 기술과 인적 교류를 공유한 높은 단계의 공동제작으로 교류의 형태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0년대 초반, 남한의 방송사들이 방북 공연 등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많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으며, 사업비로 지불한 현금이 군사비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교류의 대가로 지급하는 달러를 생필품, 비료 등의 현물로 지급하라고 조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97] 방송사들은 사업비에서 현물의 비중을 늘려나갔으며, 방송교류에 필요한 발전차, 조명, 음향 등의 방송 장비를 현물로 지급하였다. 드라마 ‘사육신(KBS)’은 제작비 210만 달러 중 140만 달러의 현물과 7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방송장비를 디지털화한 KBS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방송교류를 위해 북한에 디지털 제작 장비를 현물로 지원하였다. 장비의 현물 지원과 함께 남한에 비해 낙후된 북한의 방송 제작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2회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고 인력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명 장비와 고전 의상, 분장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 최초로 디지털 제작 방식과 동시녹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98] 남북은 드라마 ‘사육신’을 통해서 방송기술의 차이를 줄이고 북측에 남북한 방송교류의 인프라는 구축할 수 있었다. 드라마 ‘사육신’을 통해서 확인한 남북한의 공동제작은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점차 교류의 형태가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사육신’ 이후로 남북이 드라마를 공동제작한 사례는 없지만, 교류가 재개된다면 글로벌 방송교류 트렌드와 유사하게 공동제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방송교류에서 일

97) “[통일부] ″북한에 달러 대신 가급적 현물로″,″ 『조선일보』, 2000년 1월 23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0/01/23/2000012370316.html(검색일: 2024년 3월 30일).

98)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pp. 32-34.

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제작의 의미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북한의 공동제작도 결국에는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권리를 나누는 방식'에 지향을 두어야 한다.

북한보다는 훨씬 높은 개방성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되는 베트남이 최근 글로벌 방송교류에 참여한 사례는 남북한 방송교류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현재로써는 불투명하지만, 북한이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개방' 정책을 채택해 나갈 경우 베트남 모델이 주요 참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판권 인수[99]와 공동제작[100] 방식을 활용하여 방송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방송 콘텐츠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의 기술과 경험을 습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01] 베트남은 방송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방송국 및 제작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판권 인수와 공동제작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의 방송사와 협력하고 해외 방송사를 통해 과학기술 및 방송 제작 기술, 인력 교육을 지원받는다. 베트남은 남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SBS)', '아빠! 어디가(MBC)' 등의 판권을 구매해 베트남 내에서 제작, 방송하였으며,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공동제작 방식을 활용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방송교류는 양국 모두에게 시장 확대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베트남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102]

---

99) 판권 인수란 현지의 제작사가 해외 방송사의 판권을 인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베트남 내의 플랫폼에 송출하는 방식이다. Tang Van Khanh, "베트남과 외국의 방송프로그램 협력 제작 동향,"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4호(2021), p. 8.

100) 공동제작이란 베트남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의 글, p. 9.

101) 위의 글, p. 4.

102) 위의 글, p. 26.

드라마 '사육신'은 5년여에 걸친 긴 시간 동안 공동제작이 진행되었으나, 교류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였다. 드라마 '사육신'은 제작 기간이 길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교류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드라마는 교류의 형태가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참여하며, 제작이 완료되는데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몇 달 안에 제작할 수 있는 음악쇼와 구분되는 특성이다. 드라마 분야의 방송교류는 제작 기간이 길고,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중단될 확률이 높아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교류가 중단될 경우, 드라마 제작을 준비한 제작 주체에게 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과 북처럼 정치의 문제가 예민한 경우에 연속성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교류가 단절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개별 방송사, 제작사 등의 방송 주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방송교류에서 다큐멘터리, 음악쇼, 스포츠 중계 등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된 이유도 불안한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국내 기구, 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한반도와 유사한 관계인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와 경제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반관반민 형태의 기구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기반하여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정권교체 등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소되거나 중단없이 기구와 법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는[103] 점은 남북한의 방송교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드라마 '사육신'은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드라마 '사육신'의 책임 프로듀서 나상엽은 선행연구를 통해 드라마 '사육신'의

103) 신종호, "양안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JPI정책포럼』, 제91권 (2011), pp. 18-19.

추진 목적을 남북한이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언어, 풍습을 가지 민족임을 확인하고 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104] 드라마 '사육신'은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질감 회복의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소재 선정 과정을 돌아보면, 남한의 의도대로 소재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촬영 전에 기획안 등을 통해 소재와 주제를 검열했고, 촬영한 영상물의 검열을 통해서 내용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남한 제작진 입장에서는 소재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결과물은 통제된 상황 속에서 비정치적인 소재만을 다룰 수 있었다. 남북한 시청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소구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검열하고 있으나, 정치, 이념, 인권을 제외한 소재를 다루는 것에는 제한을 약하게 두고 있다. 로맨스, 판타지, 퓨전사극부터 리얼리티,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소재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제작한 '오징어게임', 'D.P' 등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콘텐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105] 베트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런닝맨', '아빠어디가?'등의 한국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관습, 취미, 생활방식 등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는 있으나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기본적인 관심사는 일반적인 범주는 넘지 않는다. 중국과 베트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과의 방송교류에서도 정치, 이념, 인권 등 양국이 예민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 선에서 방송교류 소재의 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이전 독일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보도 등 시사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분단을 소재로 한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활용하여 통일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106] 남북한의 공동제작 드라마가 역사를 주요 소재로

104)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p. 13.

105) "해외 주요국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동향 뉴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년 12월 21일; https://www.kisdi.re.kr/bbs/view.do?bbsSn=113951&key=m2101113055944&pageIndex=1 (검색일: 2024년 4월 5일)

106) 박주연, "통일에 대한 방송의 책무와 남북 방송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향," 『방송문

한 ‘사육신’이 아니라 북한 남자와 남한 여자의 로맨스를 다룬 ‘사랑의 불시착(tvN)’[107]이었다면, 드라마 ‘사육신’과는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남북한의 방송교류는 북한을 배경으로 하거나 북한을 소재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북한이 소재가 되는 영상을 넘어서 남과 북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여야 한다.[108] 남북한 방송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북한’이라는 소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남한 시청자들도, 북한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꾸준히 발굴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 ‘사육신’은 남북한 방송교류의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나, 드라마 ‘사육신’이 방송된 이후로 17년의 시간이 지났다. 드라마의 제작 규모와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글로벌에서 남한 드라마의 위상도 달라졌다. 남한의 드라마는 이미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글로벌뿐 아니라 북한에서까지 K-드라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드라마 제작 환경과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드라마 공동제작은 과거 사례처럼 단순한 문화적 교감을 목표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시청자의 인식 변화를 따라잡는 동시에 글로벌에서의 산업적 성과까지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 여름호 (2018), p. 91.

107)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CJ ENM이 제작하고 tvN 채널을 통해서 방송한 멜로 드라마이다.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을 맡아, 북한 장교 리정혁역과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역을 맡았다. 2019년 12월부터 16부작이 방영되었으며, 닐슨코리아 기준 21.7%라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유종의 미 거둔 ‘사랑의 불시착’,” 『아시아투데이』, 2020년 2월 18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218010010266(검색일: 2024년 4월 5일).

108)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p. 94.

3.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과 북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방송사보다 제작사가 주도적으로 교류를 진행하였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이미 국내외에서 산업화가 진행된 분야였기 때문에 교류 초기부터 산업적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개별 주체들이 교류에 직접 참여하다 보니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제작에 참여한 하나로텔레콤은 작품의 방영권 및 상품화 권리를 해외에 수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익을 얻었으며,[109] 북한은 제작에 인력을 투입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였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남한은 하청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해왔으며, 북한은 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남한보다 자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한계도 발견된다. 남북한은 모두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현지의 낙후된 제작 설비와 인프라, 제작 시스템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정 준수와 품질 보증이 중요한 남한의 기업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북한도 기대했던 만큼의 외화를 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분야가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된 교류가 아니라 양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남북한 방송교류는 북한 애니메이션의 발전뿐 아니라 남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교류의 형태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드라마 '사육신'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

109) 김영재, "북한 개혁·개방 시대의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 전략," pp. 17-18.

으나, 산업적 성과까지 확보하였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유사한 형태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교류의 형태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인 역할과 자본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권리를 나누는 완성된 형태의 공동제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 글로벌의 방송사들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방송 환경에 맞추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류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공동제작의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영국의 BBC Studio와 독일의 ZDF가 세계적인 수준의 콘텐츠를 공동 개발, 제작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양국의 공영방송사는 고품질의 TV 콘텐츠를 제작하고,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본 시장에 맞서 두 방송사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110]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제작한 프로그램 'Seven Worlds, One Planet'은 약 4년간의 제작 기간 동안 1,500명이 넘는 인력이 제작을 통해 교류하였다.[111] 또한 2020년 에미상 내레이터 부문, 바프타 TV 크래프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112] 고품질의 TV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유사한 방식으로 유럽 공영 방송사 간의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도 있다. 프랑스 Télévisions 및 이탈리아 Rai Fiction, 독일 ZDF가 L'alliance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재정적 부담을 나누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제작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만들어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113] 글로벌 방송사들

110) "BBC Studios and German pubcaster ZDF have formed a strategic partnership to develop and co-produce "world-class content.", "BBC Studios, ZDF Form Development and Co-Production Partnership," 『Variety』, 2019년 4월 18일; https://variety.com/2019/tv/news/bbc-studios-zdf-development-coproduction-partnership-1203192342/(검색일: 2024년 3월 30일)

111) "BBC's Seven Worlds, One Planet shines spotlight on climate crisis," 『The Guardian』, 2019년 10월 7일;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9/oct/07/bbcs-seven-worlds-one-planet-series-shines-spotlight-on-climate-crisis(검색일: 2024년 3월 30일)

112) 7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 3개 부문을 수상하였다. IMDb, "Seven Worlds, One Planet Awards"; https://www.imdb.com/title/tt9805708/awards/(검색일: 2024년 3월 30일)

113) 김규찬·강혜원·육은희, "해외 주요국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동향 뉴스," 『정보통신정책

의 이러한 움직임처럼 남과 북의 방송교류도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앞선 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소재의 다양성과 방송(송출) 지역에 대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북한에서 방송될 수 있는 비정치적인 소재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북한 지역에서는 방송되지 못하였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소재 또한 북한에서 문제 되지 않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5월에 진행된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북한의 애니메이션 여러 편이 상영된 적이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북한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남한의 애니메이션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114] 남한의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애니메이션도 남한에서 방송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한반도에 송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연결이 된다. 2005년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왕후심청'이 평양의 6개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북한 지역에서의 상영을 위해 평양표준어로 더빙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115]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북쪽의 어린이들이 볼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은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 같은 형태의 남북한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북한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연구원』, 2022년 12월 21일; https://www.kisdi.re.kr/bbs/view.do?bbsSn=113951&key=m2101113055944&pageIndex=1 (검색일: 2024년 4월 5일)

114) 장유정, "['북한애니메이션특별전'・미디어시티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2002 '북한특별전'] 뛰어난 제작기술로 담아낸 계몽적 주제," 『민족21』 6월호(2001), p. 153

115) "남북합작 '왕후심청', 광복절에 북한서 개봉," 『통일뉴스』, 2005년 7월 12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72(검색일: 2024년 6월 23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이 보유한 캐릭터 산업의 성과와 디지털 유통망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남북한 애니메이션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116]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남북의 특수한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남북한의 방송 교류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 글로벌 방송사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보여준 것처럼 애니메이션 방송교류 또한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16) 김영재, "북한 개혁·개방 시대의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 전략," pp. 18-19.

제5장 결론

지난 남북한 방송교류는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한계와 짧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대부분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북한의 체제를 남한에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남한만의 일방적인 교류 형태이다.',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에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대가로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였다.' 등 남북한 방송교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러한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가장 큰 오류는 따로 있다. 지난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평가가 '방송교류'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성과는 없었으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방송교류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가 취해야 할 성과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남북한 방송교류는 총 84건이다. '방송교류'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있지만, 방송영상물 교류, 주요 행사 중계, 취재·제작 지원, 공동제작,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제작에도 생방송 뉴스, 음악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여러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유형에 따라 교류의 특성과 성과, 한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공동제작은 방송교류에서 가장 고도화된 형태로, 교류의 과정에서 남북이 쌓아 올린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 진행되었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방송 영상물 교류, 외국 영상물 공동활용, 주요 행사 중계, 취재·제작 지원의 방송교류 유형들도 교류가 지속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의 형태를 지향하며 제작되었다. 특히, 글로벌 방송산업에서 공동제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제작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공동제작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

어 지난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평가 지표에 따라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평가, 분석하였다. 평가 지표는 교류의 형태, 방송(송출) 지역, 소재의 다양성,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총 5가지이다.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을 4단계로 구분하고 1점에서 4점까지 배점을 부여하였다.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에 따라 남북한 방송교류의 대표 사례인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 드라마 '사육신',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평가하였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에 점수를 부여한 것은 남북한 방송교류를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다. 평가 지표를 정량화하여 방송교류 개별 사례의 특성을 도출하고, 개별 사례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평가보다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개별 사례가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방송(송출)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음악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오! 통일코리아'는 남한과 북한 두 지역에서 모두 방송되었으며. 남북한 주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남북의 정치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여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음악쇼 분야는 남북의 정치·경제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도 거부감 없이 교류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음악쇼 분야의 방송교류는 남북의 주민들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집중하여야 한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발굴하고, 음악쇼의 시청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드라마 '사육신'은 교류의 형태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드라마 분야는 방송교류 중 가장 방대한 제작 인프라와 인적 교류가 필요한 분야로 방송교류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이다. 드라마 '사육신'의 공동제작을 통해 남북한 방송기술의 격차를 좁히고 방송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드라마 '사육신'은 지난 시기 남북한 방송교류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었으며,

방송교류를 통해 남북이 쌓아 올린 신뢰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었다. 드라마 '사육신'이 방송된 지 긴 시간이 지났다. 당시에 좁혀진 방송기술의 격차가 다시 커졌고, 방송교류의 인프라 역시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교류가 재개되면 드라마 '사육신' 공동제작을 통해 쌓은 경험과 성과들은 남북한 방송교류의 좋은 교보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북한 방송교류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교류의 형태, 산업적 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이미 글로벌로 산업화가 진행된 분야였기 때문에 교류 초기부터 산업적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방송교류는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남북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공동제작의 개별 사례를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고, 분석해 보았다. 남북한 방송교류를 큰 틀에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기에는 개별 교류 사안에서 다수의 의의를 찾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방송교류 참여자들의 노력이 퇴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시야를 더 멀리 두고, 언제든 방송 교류가 재개될 것을 예비하면서, 교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방송교류는 새로운 지향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국가 간의 교류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하여야 한다. 화해 협력이라는 틀에만 얽매여 교류가 진행된다면, 남한이 북한에 시혜를 베풀었다는 시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시각에 따라 남북 방송교류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교류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방송교류의 지향점을 설정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김갑식 외.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21.

김영란.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교류 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 서울시: 솔과학, 2021.

김철완·김성옥.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2014.

김혜준 외.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1.

문화방송. 『오! 통일 코리아(2002MBC평양 특별공연/MBC뉴스-여기는평양)』. 서울: 문화방송, 2002.

박영정 외.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윤선희. 『다매체시대 영상산업의 문호 개방과 국제 공동제작연구』.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1999.

이기현·이우승·김자영. 『남북한 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이성우·정성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경기: 경기연구원, 2020.

이우승·박경세.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2001.

이우영·손기웅·임순희.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이정·이상구. 『1999-2004 남북 애니메이션 교류 백서』.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04.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 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1.

____.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 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6.

____. 『(KBS)북한 취재·제작 핸드북』. 서울: 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8.

MBC통일방송추진단. 『북한 취재·제작의 실제』. 서울: MBC통일방송추진단, 2020.

나. 논문

김도연. "남북 언론 교류 어디까지 왔나_남 '평양지국 목표로 동분서주'…북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신문과방송』. 9월호 No. 573, 2018, pp. 54-57.

김영재. "북한 개혁·개방 시대의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 전략." 『애니메이션연구』. 제14권 제4호, 2018, pp. 7-23.

김점식. "남북한 합동중계방송 사례 연구: 남북정상회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 2018, pp. 85-130.

나상엽. "남·북 공동제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과정 및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남한길. "제작기_EBS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신문과방송』. 2월호, 2004, pp.103-107.

박주연. "통일에 대한 방송의 책무와 남북 방송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향." 『방송문화』. 여름호, 2018, pp. 75-97.

송일준. "한국 텔레비전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방안." 『연세커뮤니케이션즈(Yonsei communications)』. 6호, pp. 94-108.

신종호. "양안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JPI정책포럼』. 제91권, 2011.

오기현. "한국 방송사의 방북대중공연의 변화추이와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1.

이승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이슈와 논점』. 제1487호, 2018.

이용배. "북한 애니메이션의 현황과 남북교류 가능성에 대한 고찰."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6호, 2002, pp. 221-250.

이향은. "북한자료 관리와 학술적 활용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장유정. "['북한애니메이션특별전'·미디어시티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2002 '북한 특별전'] 뛰어난 제작기술로 담아낸 계몽적 주제." 『민족21』. 6월호, 2001. p. 152-153

하종원·정길화. "남북 방송공동제작의 시안적 모델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2000, pp. 57-85.

Tang Van Khanh. "베트남과 외국의 방송프로그램 협력 제작 동향."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4호, 2021, pp. 3-19.

다. 기타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s://www.kisdi.re.kr.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KBS. https://news.kbs.co.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YTN. https://star.ytn.co.kr.

3. 외국문헌

Stage32. https://www.stage32.com.
Variety. https://variety.com.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IMDb. https://www.imdb.com.

ABSTRACT

Evaluation of inter-korea broadcast exchanges -Focusing on co-production-

Lee, Kyoung Bi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Lee, Woo Young

This study classifies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conducted between 1998 and 2019 by category, examines their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and evaluates and analyzes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with a focus on co-production. Moving beyond the binary evaluation of “success” or “fail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individual cases of inter-Korean co-productions to analyze their outcomes and significance. The evaluation criteria applied to assess individual cases of inter-Korean co-productions include ‘form of exchange,’ ‘broadcasting region,’ ‘diversity of content,’ ‘industrial outcomes,’ and ‘sustainability,’ comprising five categories in total. Based on these criteria, the researcher assessed representative programs of inter-Korean co-productions, including the music shows “Leemija’s Camellia Girl” and “Oh! Unified Korea,” the drama “Six Martyred Ministers,” and the animation “Pororo the Little Penguin.”

The music shows “Leemija’s Camellia Girl” and “Oh! Unified Korea” achieved notable success in the ‘broadcasting region.’ These programs are recognized as the first South Korean popular music shows aired in North Korea,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integration of the people

of both Koreas. The drama “Six Martyred Ministers" showed excellent results in terms of the ‘form of exchange.’ It is evaluated that the co-production of this drama helped bridge the gap in broadcasting technolog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ongoing exchanges. The animation "Pororo the Little Penguin" is regarded as the most successful case in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particularly excelling in ‘industrial outcomes’. This program is noted for its industry-oriented approach from the early stages of exchange, designed to bring practical benefits to both Koreas.

Through this study, the outcomes,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individual cases of inter-Korean co-productions were identified. If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resume in the future, the evaluations of individual cases deriv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rational judgment setting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Key words

inter-Korea broadcasting exchange, inter-Korea co-productions, analysis by category, case study analysis, Evaluation Criteria for inter-Korea co-productions